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531-01

제주학연구 61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획과 집필 지침

2019년 9월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획과 집필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도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획

□ 사업 요약	6
Ⅰ. 추진 배경	8
Ⅱ. 추진 전략	9
Ⅲ. 추진 체계 및 절차	9
Ⅳ. 사업 개요	11
Ⅴ. 주요 추진 과제	12
Ⅵ. 기대 효과	19
Ⅶ.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20
Ⅷ. 집필 지침과 집필 시스템 구축	21

부록 《(가칭)제주어대사전》 집필 지침

1. 표제어	29
2. 원어 정보	39
3. 발음 정보	42
4. 품사 정보	45
5. 활용 정보	50
6. 뜻풀이 정보	52
7. 사용역 정보	61
8. 관련어 정보	66
9. 용례 관련 정보	71
10. 기타	75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획



□ 사업 요약

1. **사업명:** 《제주어대사전》 편찬 계획 수립

2. **수행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3. 사업 목적

-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깃든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의 근간인 제주어 자료 구축.
-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주어 자료를 집대성함으로써 제주어 학습, 교육, 사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제주어의 일상화를 위한 언어 지식 체계 구축으로 소멸 위기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
-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여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전 구축.
- 인터넷 환경에 맞는 웹사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사업 기간:** 2018. 8.~2024. 12.(6년 4개월)

5. **예산:** 20억 원

6. 주요 사업 내용

6.1. 내용면

- 사전 수록 어휘 예상 목표 40,000개 이상(어휘, 관용어, 속담 등).
-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및 확보.
- 사전 편찬을 위한 전문가 포럼·자문위원회 개최.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의 자료 수정 및 보완, 용례 추가 등.
 - 쉬운 풀이 및 보완 자료 구축.

- 사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진, 삽화 등 보조 자료 구축.
-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새 어휘 발굴을 위한 현지 조사.
 - 어휘, 뜻풀이, 용례 등 확대 구축.
- 《제주어대사전》 웹사전 구축 기반 마련.

6.2. 형식면

- 사전 발간을 위한 사전 집필 시스템 구축.
- 집필 지침 마련.
- 사전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 구성.

7. 제주어대사전 편찬 계획 수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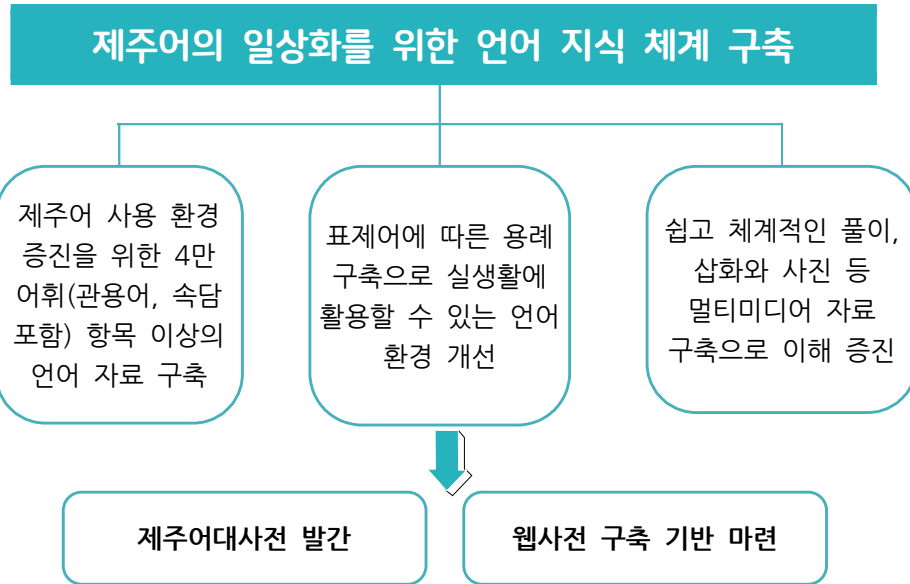
- 2018. 8. 31. ~ 2019. 6. 30. 연구진 구성, 11차의 연구진 회의를 통해 편찬 계획과 집필 지침 등 마련.
- 2019. 5. 28. 제주어대사전 편찬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 제주어 전문가, 사전 전문가, 제주어 기관과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참여.
- 2019. 5. 31. 집필 지침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 2019. 9. 19. 편찬 계획과 편찬위원회 구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 2019. 9. 20.~23. 편찬 계획과 집필 지침 최종 자문.
- 2019. 9. 27. 제주어대사전 편찬·자문위원회 구성.

1. 추진 배경

-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은 제주 문화 발전은 물론이요 제주어의 가치를 드높이고, 이를 후세에 전승하는 제주어 구술 자료들을 온전히 해석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임.
- 제주어의 보전을 위해서는 사전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09년 발간된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은 절판된 지 오래여서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등 이미 간행된 사전들은 제주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휘 등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와 함께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휘 보강과 뜻풀이, 예문 등을 추가한 명실상부한 사전 편찬이 필요함.
-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을 위한 제주어 교육과 학습 등의 기초 자료 구축과 보급 필요.
-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여 웹사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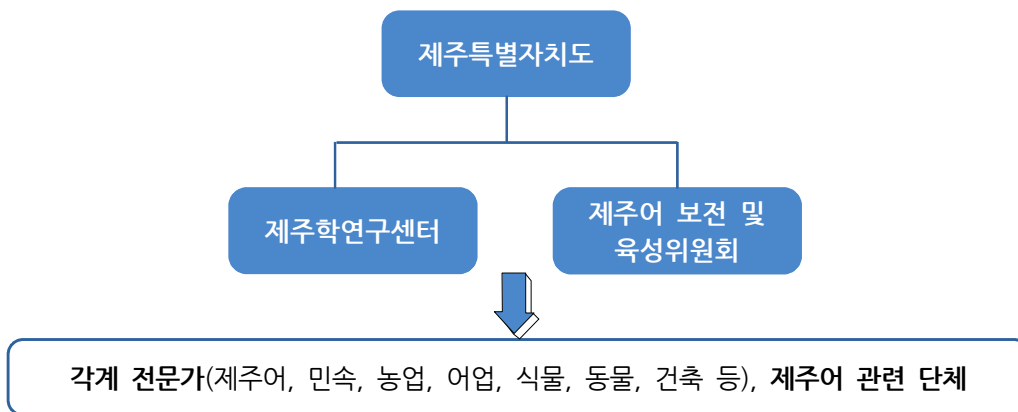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2124호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에 근거함.

II. 추진 전략



III. 추진 체계 및 절차

○ 추진 체계



○ 추진 기관별 역할

기관	주요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진행 총괄, 제주어 보전 및 육성위원회 운영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실무 총괄, 기본 계획 수립, 사전 편찬위원회(편찬팀,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주어 보전 및 육성위원회	자문 등
전문가 집단	어휘 수집, 집필, 교열 등 작업 진행
제주어 관련 단체	자문 등

○ 단계별 추진 절차(6년 4개월)

1단계 (2018. 8.~2019. 9.)	2단계 (2019. 10.~2021. 12.)	3단계 (2022. 1.~2024. 6.)	4단계 (2024. 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찬 기본 계획 수립 • 집필 시스템 구축 • 전문가 포럼 등 • 편찬위원회 구성 - 편찬팀, 자문팀 • 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검토, 보완 집필 • 구술 용례 구축 • 새 어휘 조사와 집필 • 새 어휘 원고 검토와 감수 • 사진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 용례 구축 • 새 어휘 조사와 집필 • 새 어휘 원고 검토와 감수 • 사진 수집과 삽화 제작 • 사전 편집 및 교정·교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인쇄, 발간 • 출판기념회 • 웹사전 준비

○ 사전 업무 흐름도



IV.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깃든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의 근간인 제주어 지식 자료 구축.
-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주어 자료를 집대성함으로써 제주어 학습, 교육, 사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 제주어의 일상화를 위한 언어 지식 체계 구축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
- 인터넷 환경에 맞는 웹사이트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업 기간: 2018. 8.~2024. 12.(6년 4개월)

○ 소요 예산: 20억 원

○ 사업 수행 방식: 제주학연구센터 용역

○ 주요 사업 내용

<내용면>

- 《제주어대사전(濟州語大辭典)》은 2009년 발간한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을 기반으로 하여 새 어휘를 추가하여 뜻을 쉽게 하고 용례 등을 확충하여 실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역사, 환경 등을 담아낸 제주어 어휘 40,000개(관용구, 속담 등 포함)의 자료를 표제어로 구축.
- 뜻을 쉽게 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제주어 교육과 학습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표제어마다 그 쓰임을 알 수 있도록 용례를 구축하여 실생활에서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진, 삽화 등 시각 자료 구축.
- 현지 조사와 제주어 구술 채록 자료집 등을 통하여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새 어휘 구축.
- 《제주어대사전》 웹사전 구축 기반 마련.

〈형식면〉

- 《제주어대사전》 발간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
- 사전 발간을 위한 사전 집필 시스템 구축.
- 사전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 구성.

V. 주요 추진 과제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의 현황과 문제점

- 제주 사람들의 얼이 깃든 제주어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서는 사전이 큰 역할을 함. 그러나 2009년 발간된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은 절판된 지 오래되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등 이미 간행된 사전들은 제주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휘 등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와 함께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어휘, 뜻풀이, 예문 등을 추가한 명실상부한 사전 편찬이 필요함.
-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을 위한 제주어 교육과 학습 등의 기초 자료 구축과 보급이 필요.

• 개선 방향

-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이 필요함.
- 2009년 발간한 사전은 절판이어서 제주어 사용자와 제주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사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기존 사전에 부족한 표제어를 추가하고 뜻풀이를 쉽게 해서 이해하기 좋게 함.
- 표제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례를 보완함.

- 《제주어 구술 채록 자료집》 등을 활용한 지역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표제어와 용례 등을 통하여 지역적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함.
- 발음 정보와 활용 정보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사전의 쓰임새를 높임.
- 뜻풀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진과 삽화 자료를 구축.
- 제주어 웹사전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1. 내용면

《제주어대사전(濟州語大辭典)》은 2009년 발간한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을 기반으로 하여 새 어휘를 추가하여 뜻풀이를 쉽게 하고 용례 등을 확충하여 실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가. 표제어

○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역사, 환경 등을 담아낸 제주어 어휘, 관용구, 속담 등 표제어와 부표제어 40,000개 이상 구축.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표제어 25,350개 항목의 수정 및 뜻풀이 보완, 용례 추가.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 없는 새 어휘 14,650개 이상 표제어(어휘, 문법소, 관용구, 속담 등) 추가.

※ 《제주어사전》(1995): 표제어 18,456항목.

《개정증보 제주어사전》(2009): 표제어 25,350항목, 사진 자료 302장.

나. 뜻풀이

- 뜻풀이가 없는 것은 보완하고, 기존 제주어를 활용한 뜻풀이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뜻풀이는 쉽게 수정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표제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하여 제주어 교육과 학습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형태에 대한 설명도 대표 표제어와 마찬가지로 상세 뜻풀이를 함.

<예시>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난-전 𐆫 [덕수] → 난전-밭.

난전-밭 𐆫 마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들녘에 있는 밭.[전역]

《제주어대사전》

난-전 𐆫 마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들녘에 있는 밭. 토질이 나빠서 메밀 따위의 농사를 짓는다.[덕수] =난전밭.

난전-밭 𐆫 마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들녘에 있는 밭. 토질이 나빠서 메밀 따위의 농사를 짓는다.[조수 함덕 화순 효돈] =난전.

다. 용례

○ 표제어마다 그 쓰임을 알 수 있도록 용례를 구축하여 실생활에서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노년층의 제주 토박이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조사한 구술 내용을 전사한 자료에서 발췌하여 사용함.
- 기존 제주어가 활용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표제어의 뜻을 잘 반영한 예시를 사용함.

<예시>

떡대[-대] 𐆫 떡다. <떡국, 떡으난, 떡영> ①~⑦. ⑧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
¶비 오난 도비지 다 물 {떡언} 못 씨켜.(비 오니까 도배지 다 물 먹어서 못 쓰겠다.)

<용례 활용 자료>

- 한국정신문화원(1980·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85), 《제주설화집성》.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2015~2016),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2017~2019), 《제주어구술자료집》(1-28권).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원) 발간 무속 자료.
- 국립국어원(2005~2012), 《지역어 조사 보고서》,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5~),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 현용준(1980), 《제주무속자료사전》 등 신화, 전설, 무속 관련 구술 자료.
- 김영돈(1962), 《제주도민요연구》(자료편).
- 진성기(1990),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08~), 제주어 구술 자료 총서.
- 기타 출처가 분명한 구술 자료.

라. 발음 정보

- 사전의 쓰임새를 높이기 위하여 발음 정보 추가.

〈예시〉

질-구덕[-꾸-] 罎 물건을 넣고 등에 저 나를 수 있게 대오리를 이용하여 직사각형 모양으로 결은 그릇. ¶ 옛날사 밧디 덩길 때 {질구덕에} 밥 놓 정 덩겨낫주게.(옛날 이야 밧에 다닐 때 ‘질구덕’에 밥 넣어서 지고 다녔었지.)

마. 활용 정보

- 사전의 쓰임새를 높이기 위하여 활용 정보 추가.

〈예시〉

베리다 罎 〈베리곡, 베리난, 베령〉 보다. ①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보 다. ¶ 질 걸을 맨 들세기 차지 아녀게 잘 {베령} 덩기라.(길 걸을 때는 들멍이 차지 않게 잘 보며 다녀라.) ②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 ¶ 세경 {베리곡} 허당 보민 차 못 타쿠다.(‘세경 베리고’ 하다 보면 차 못 타겠습니다.)

바. 지역 정보

- 어휘 사용 지역과 용례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지역의 언어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예시〉

터베 罎 때. 기다란 나무토막을 엮어 물에 띄워서 물건을 운반하거나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기구. ¶ 구상낭 {터베라사} 물에 오래 잘 뜨곡.(구상나무 때배여야 물에 오래 잘 뜨고.) **참고** ‘터베’는 구상나무로 만들면 썩지 않고 좋는데 나무를 구

하기 쉽지 않아 보통은 삼나무를 이용하여 만든다. 보통 사들을 이용하여 자리돔을 뜰 때 타거나 거름으로 사용할 모자반 따위를 채취해서 운반할 때 사용한다. [세화수산 온평] =터위. 테. 테베. 테우. 테위.

사. 시각 자료

- 사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진, 삽화 등 시각 자료 구축.
 - 사진 1,000장, 삽화 1,000장 등 2,000장의 자료 첨부.
 - 도구의 경우는 사진이나 삽화 자료를 활용하면 부분 명칭 등을 한눈에 살필 수 있어 이해를 도움.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2009): 사진 자료 302장 활용.

아. 새 어휘 구축을 위한 조사

-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새 어휘 구축을 위한 현지 조사.
 - 현지 조사는 기존에 조사하지 않았던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표제어와 용례 구축 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2019년 제주시 영평동, 한경면 금등리에서 제주어 구술 조사.

자. 웹사전 기반 마련

- 《제주어대사전》 종이 사전 발간으로 웹사전 구축 기반 마련.

- 사전 입력 시스템 구축.
- 새 어휘 조사 등을 통한 음성 자료 확보 등.

2. 형식면

가. 《제주어대사전》 편찬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과 자문회의 개최

- 2019. 5. 28. 제주어 전문가, 사전 업무 관련 기관 및 단체, 제주어 단체 등
참여: 사전 발간 방향 논의.

• 전문가 포럼 내용

이름	소속·직책	주제
정승철	서울대학교 교수	《제주어대사전》(가칭)의 편찬을 위하여
강영봉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을 통해 본 《(가칭)제주어대사전》의 방향
이승재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사용자 참여형 사전인 《우리말샘》을 통해 본 《(가칭) 제주어대사전》의 방향
이길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새어휘부 부장	《제주어대사전》의 편찬 방향에 대한 제언-올림말 표기와 발음을 중심으로
김정민	사단법인 제주어보존회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는 《(가칭)제주어대사전》의 방향
문덕찬	제주어 보전 및 육성위원회 위원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는 《(가칭)제주어대사전》의 방향
고경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에 대한 의견
김성룡	제주어교육연구회장	교육자 입장에서의 《(가칭)제주어대사전》의 방향

- 2019. 5. 30. 자문회의 집필 지침 안 검토 등.
- 2019. 9. 20.~23. 편찬 계획과 집필 지침 최종 자문.

※ 논의 결과

- 《제주어대사전》 명칭 지양: 100,000 어휘 이하는 대사전 이름을 붙일 수 없음.
- 뜻풀이를 쉽게 하고, 가급적 용례를 많이 구축하는 게 중요함.
- 지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정보를 표기함.

- 발음 정보, 활용 정보, 문형 정보 등 구축 필요.
-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웹사전 구축 필요.
- [으], [으]음을 반영한 전자사전 구축.
- 전산언어학 전문가가 작업팀에 들어와야 전체적인 일의 부담이 줄고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음.
- 제대로 된 사전 편찬을 위해서는 예산, 인력, 기간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함.

※ **겨레말큰사전 남측 사업회 조직도**

이사 10명, 상임감사 1명, 편찬위원회(남측 11명, 북측 10명)

정규 직원 25명(편찬실 21명, 사무처 4명)

사전 규모: 약 33만 개

편찬 기간: 2005년 시작

예산: 연 30억 이상 투입(현재까지 370억 이상 투입)

나. 사전 발간을 위한 입력 시스템 구축

- 주식회사 아트피큐에 의뢰하여 《제주어대사전》 집필 시스템 구축.
 - 향후 웹사전 발간을 위한 기초 다지기.
- 입력 시스템 연구진 검토 과정 거침.(집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수정할 예정.)

다. 집필 지침 마련

- 연구진 구성 12차 회의 집필 지침 마련.
- 2차례의 자문회의(2019. 5. 31., 9. 23.(서면)) 거쳐 수정 보완.

라. 제주어대사전 편찬위원회 구성

- 사전 편찬팀
 - 사전 실무: 제주학연구센터
 - 어휘, 용례 조사팀: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전문가.
 - 집필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감수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교열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자문위원회
 - 제주어 전문가,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행정 실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어대사전 편찬·자문위원회			
사전 편찬팀		자문위원회	행정 실무
사전 실무	제주학연구센터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 관련 기관과 단체, 국어 관련 기관과 단체 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어휘·용례 조사팀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전문가		
집필팀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전문가		
감수팀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전문가		
교열팀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전문가		
전산팀	관련 전문가		

VI. 기대 효과

-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 회복과 제주어 보전·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함.
- 제주어 교육과 연구의 기초 자료 구축으로 제주어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함.
- 제주어대사전 발간은 제주어의 가치 선양과 제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다른 지역 방언 사전과 연계하여 국어 문화 발전에 기여함.
- 정보화의 기반을 다져 놓음으로써 향후 웹사전 구축에도 기여함.

Ⅶ.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단위: 천 원)

단계	연도	추진 내용	소요 예산
1단계	1차 연도 (2018. 8. ~201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획 수립 • 제주어대사전 편찬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 제주어대사전 편찬·자문위원회 구성 • 제주어대사전 편찬을 위한 집필 시스템 개발 • 새 어휘 구축을 위한 제주어 조사, 전사 	60,000
2단계	2차 연도 (2019. 10. ~201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2009) 검토, 보완 집필 • 구술 용례 데이터베이스화 • 새 어휘 조사와 집필 • 새 어휘 원고 검토와 감수 	50,000
	3차 연도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2009) 검토, 보완 집필 • 구술 용례 데이터베이스화 • 새 어휘 조사와 집필 • 새 어휘 원고 검토와 감수 • 사진과 삽화 구축 	350,000
	4차 연도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2009) 검토, 보완 집필 • 구술 용례 데이터베이스화 • 새 어휘 조사와 집필 • 새 어휘 원고 검토와 감수 • 사진과 삽화 구축 	350,000
3단계	5차 연도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2009) 검토, 보완 집필 • 구술 용례 데이터베이스화 • 새 어휘 조사와 집필 • 새 어휘 원고 검토와 감수 • 사진과 삽화 구축 	350,000
	6·7차 연도 (2023. 1. ~202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어휘 조사와 집필 • 새 어휘 원고 검토와 감수 • 사진과 삽화 구축 • 교열, 교정, 사전 편찬 	500,000
4단계	7차 연도 (2024. 7. ~202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편찬 • 출판기념회 	340,000
합계			2,000,000

Ⅷ. 집필 지침과 집필 시스템 구축

○ 사전 집필 지침

- 연구진을 구성하여 집필 지침을 마련하고 집필 시스템 검토.
- 12회의 연구진 회의, 2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집필 지침을 수정, 보완함.
- 향후 사전 집필, 감수, 교열 등을 통하여 지침 수정 및 보완 작업 필요.

○ 사전 체제

□ 거시구조

- 거시구조란 사전 표제어의 종적 배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표제어와 부표제어로 구성한다.
 - 주표제어의 표기 문자는 한글이다.
- 표제어는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으], [으]는 모음 중 맨 뒤에 배열한다.
 - 주표제어는 일상어, 외래어, 전문어 등을 포함한다.
 - 주표제어의 범주는 단어, 접사, 어미이며 용언은 기본형 ‘-다’ 형으로 한다.
 - 동음어 배열을 위한 구분자로 01, 02, 03...을 사용하며, 배열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
 - 어휘 형태는 문법 형태보다 앞에 배열한다.
 - 어휘 형태: 단어(조사 제외)
 - 문법 형태: 조사, 접사, 어미
 - 표제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접사, 어미 순으로 배열한다.
 - 명사는 ‘보통 명사 → 고유 명사 → 의존 명사’ 순으로 배열.
 -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 지시 대명사’ 순으로 배열.
 - 동사는 ‘자동사 → 타동사 → 보조 동사’ 순으로 배열.
 - 형용사는 ‘본 형용사 → 보조 형용사’ 순으로 배열.
 - ‘고유어 → 한자어 → 기타 외래어’ 순으로 배열한다.

- ‘단일어 → 복합어(합성어, 파생어)’ 순으로 배열한다.
- 일반어를 전문어보다 앞서 배열한다.
- 단어어를 다의어보다 먼저 배열한다.
- 부표제어는 주표제어가 들어가는 관용구와 속담(금기어 포함)으로 한정한다.
- 부표제어는 관용구, 속담 순으로 하고 한글 자모 순서대로 배열한다.

□ 미시구조

- 미시구조란 각 표제어에 속하는 발음,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등을 횡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 [] ’은 필수 정보 항목, ‘ () ’은 수의적(임의적) 정보 항목임을 나타낸다.

○ 주표제항

[주-표제어01] (한자)(발음 정보) [품사] (전문어)(활용 정보)

[뜻풀이] [용례] (옛말)(원어)(지역)(변이형)(기타 정보)

○ 부표제항

[부표제어] [갈래 표시] [뜻풀이]

○ 사용 약물

품사 표시: ㄷ, ㄷ, ㄱ, ㄴ, ㄷ, ㄷ, ㄷ, ㄷ, ㄷ, ㄷ

준품사 표시: ㄷ, ㄷ, ㄷ

부표제어: ㄷ, ㄷ

원어 정보(차용어의 국가 정보): ㉠, ㉡, ㉢, ㉣, ㉤, ㉥

옛말: ㉦

용례: ㉧ 용례1/용례2

인용례 출전: 《 》

다의어 뜻 배열 순서: ① ② ③

한자, 예문의 표준어 대역: ()

변이형: =

활용 정보: < >

문헌 정보: 「 」

문화 정보 등: ㉨

용례 안의 표제어: { }

전문어: []

지역: []

○ 제주어대사전 집필 시스템

- 개발자: 주식회사 아트피큐(용역)
- 사전 집필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 보완 및 새 어휘 집필, 교열.
- 사전 집필 과정 중에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시스템 보완.

<제주어사전 집필 시스템 예시>

- 제주어사전 집필 시스템(같은 표제어 보기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wo side-by-side views of the dictionary system. The left view, titled '본인' (Myself), shows the main entry for '먹다'(동사). It includes fields for '수정 | 삭제' (Edit | Delete) and '사전화면보기' (View dictionary page). The entry details include: (품사) 동사, (발음) [-따], (활용정보) <먹크, 먹영, 먹영>, (뜻풀이) 먹다. (1) 「...을」 @ (제사, 잔치, 상례) 따위에 참례하여 음식 따위를 입에 넣다., and (예문) ¶삼촌네 잔치 {먹으레} 언제 갈 거마썸?(삼촌네 잔치 '먹으러' 언제 갈 거예요?)/우리 아달은 서월 살아도 식게 {먹으레} 꼭 옵니다.(우리 아들은 서월 살아도 제사 '먹으러'는 꼭 옵니다.). The right view, titled '다른 집필진의 같은 표제어 보기' (View other authors' same headword), shows a similar entry for '먹다'(동사) with slightly different details: (활용정보) <먹크, 먹으난, 먹영>, (뜻풀이) 먹다. (1) 「...에」 @발레, 군 따위가 파 들어가거나 퍼지다., and (예문) ¶호상 쯤 {먹은} 거 임지지 아낸다.(수의 쯤 먹은 거 임하지 않는다.).

- 제주어사전 집필 시스템 미시 체계에 따른 등록(예시: 뜻풀이, 예문)

This screenshot shows the '사전편집' (Dictionary Edit) interface for the '뜻풀이' (Meaning) field. The title bar is teal with a close button. Below the title, there is a teal header with the text '뜻풀이'. A text input field contains the example meaning: '(1) 「...을」 @ (제사, 잔치, 상례) 따위에 참례하여 음식 따위를 입어'. At the bottom, there are two buttons: a blue '일어/특수문자입력' (Input special characters) button and a green '적용' (Apply) button.

This screenshot shows the '사전편집' (Dictionary Edit) interface for the '예문' (Example) field. The title bar is teal with a close button. Below the title, there is a teal header with the text '예문'. A text input field contains the example sentence: '¶삼촌네 잔치 {먹으레} 언제 갈 거마썸(삼촌네 잔치 '먹으러' 언제'. At the bottom, there are two buttons: a blue '일어/특수문자입력' (Input special characters) button and a green '적용' (Apply) button.

- 제주어사전 집필 시스템 사전 화면 보기(예시1: 먹다)

<h2>먹다¹(동사)</h2>
<p>(품사) 동사</p> <p>(발음) [-따]</p> <p>(활용정보) <먹곡, 먹엉, 먹엉></p> <p>(뜻풀이) 먹다. (1) 「…을」 ㉠(제사, 잔치, 상례) 따위에 참례하여 음식 따위를 입에 넣다.</p> <p>(예문) ◀삼촌네 잔치 {먹으레} 언제 갈 거마씸?(삼촌네 잔치 '먹으러' 언제 갈 거예요?)/우리 아덜은 서울 살아도 식게 {먹으렌} 꼭 옵니다.(우리 아들은 서울 살아도 제사 '먹으러'는 꼭 옵니다.)</p>

- 제주어사전 집필 시스템 사전 화면 보기(예시2: 새비낭)

<h2>새비-낭¹(명사)</h2>
<p>(품사) 명사</p> <p>(발음)</p> <p>(활용정보)</p> <p>(뜻풀이) 찔레나무.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5월에 흰 꽃이 피고, 10월께 열매가 빨갭게 익는다. 새순은 먹을 수 있으며, 열매는 약용으로 쓴다.</p> <p>(예문) ▶옛날에는 뉘인가 {새비낭가시란} 게 잇어저.(옛날에는 뉘인가 '찔레나무'란 게 있었어.)</p> <p>(출전정보) 《제주어구술자료집 12, 2018》</p> <p>(원어)</p> <p>(이형태) =독꼬리-낭. 똥꼬리-낭. 새베-낭.</p>



《(가칭)제주어대사전》 집필 지침



《(가칭)제주어대사전》 집필 지침 목차

1. 표제어	29
2. 원어 정보	39
3. 발음 정보	42
4. 품사 정보	45
5. 활용 정보	50
6. 뜻풀이 정보	52
7. 사용역 정보	61
8. 관련어 정보	66
9. 용례 관련 정보	71
10. 기타	75

1. 표제어

1.1. 일반 원칙

1) 노년층의 제주 토박이들이 썼거나 쓰는 말 가운데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단어를 표제어로 한다.

(1) 제주 사람들이 일상에서 널리 쓰는 단어.

<예시>

구덕 [뽕] 바구니. 『요즘은 {구덕도} 잇주만 그뻐 멩텅이 즐아 가지고서 동냥을 흐먼서 빌어먹었어.(요즘은 바구니도 있지만 그뻐 떡둥구미 곁어 가지고 동냥을 하면서 빌어먹었어.)

떡다[-따] [뚬] 떡다. <떡곡, 떡으난, 떡영> (1)「…을」 ①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밥 {떡곡} 흐영 가라.(밥 먹고 해서 가라.) ②담배나 따위를 피우다. 『호랭이 담배 {떡단} 시절 얘길 허지 맙서.(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길 하지 마십시오.) ③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나쁜 마음 {떡으민} 안 뉘다이.(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된다.) ④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나 {떡은} 사름이 경허는 거 아니우다.(나이 먹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⑤겁, 충격 따위를 느끼게 되다. 『나 보난 겁 {떡영} 도망가는 거 보라.(나 보니까 겁 먹고 도망가는 거 보라.) ⑥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 『어멍신디 욱 {떡으난} 막 우는 거 봅서.(어머니한테 욱 먹으니 마구 우는 거 보십시오.) ⑦(속되게) 뇌물을 받아 가지다. 『그 사름 돈 {떡으난} 짝어쨌젠 골아라.(그 사람 돈 먹으니까 짝어쨌다고 말하더라.) ⑧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 『비 오난 도비지도 다 물 {떡영} 못 씨켜.(비 오니까 도배지도 다 물 먹어서 못 쓰겠다.) ⑨(제사, 잔치, 상례) 따위에 참례하여 음식 따위를 입에 넣다. 『삼촌네 잔치 {떡으레} 언제 갈 거 마썸?(삼촌네 잔치 ‘떡으러’ 언제 갈 거예요?)/우리 아덜은 서월 살아도 식계 {떡으렌} 꼭 옵니다.(우리 아들은 서울 살아도 제사 ‘떡으러’는 꼭 옵니다.) (2)「…에」 ①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고루 퍼지다. 『감물 옷구음에 잘 {떡계} 잘 놀리라.(감물 옷감에 잘 떡계 잘 놀려라.) ②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가거나 퍼지다. 『호상 줌 {떡은} 거 입지지 아녘다.(수의 줌 먹은 거 입히지 않는다.) (3)(일부 동사 뒤에서 ‘-어 떡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강조할 때 쓰는 보조 동

사. 주로 그 행동이나 그 행동과 관련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쓴다. ♣어머
근는 말 {잊어 먹지} 말라이.(어머니 하는 말 잊어 먹지 마라.)

(2) 제주 사람들이 썼거나 쓰는 행정마을·법정마을·자연마을, 개 이름, 오름 이름, 당 이름, 물 이름, 바다 이름 등 고유어 지명.

<예시>

불그-못[--못] 𐄂 [지명] ①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에 있는 물 이름. 우물 바닥이 송
이로 되어 있어서 못의 물이 붉어서 붙은 이름이다. =불그못 ①. ②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의 옛 이름. =불그못 ②.

불그-못[--못] 𐄂 [지명] ①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에 있는 물 이름. 우물 바닥이 송
이로 되어 있어서 못의 물이 붉어서 붙은 이름이다. =불그못 ①. ②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의 옛 이름. =불그못 ②.

널-개 𐄂 [지명] ①제주시 한경면 판포리(板浦里)의 개 이름. ②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板浦里)의 옛 이름.

널개-오름 𐄂 [지명] 제주시 판포리 남동쪽에 있는 오름 이름. 표고 93.2미터. =널개
오름.

널개-오름 𐄂 [지명] 제주시 판포리 남동쪽에 있는 오름 이름. 표고 93.2미터. =널개
오름.

(3) 제주 사람들이 썼거나 쓰는 고유어 식물 이름이나 동물 이름.

<예시>

노로 𐄂 [동물] 노루. 사슴과의 포유류. =노리. ♣저슬엔 먹을 거 없이민 {노로덜이}
막 헤벤으로도 느려와났어.(겨울엔 먹을 거 없으면 노루들이 마구 해변으로도 내려
왔었어.) ㉠ 노르. =노리.

노리 𐄂 [동물] 노루. 사슴과의 포유류. =노로. ♣요센 {노리덜토} 막 하.(요센 노루
들도 아주 많아.) ㉠ 노르.

노리 췌기 흔 점 먹젠 허당 지 췌기 열 점 일른다. 𐄂 노루 고기 한 점 먹으려고
하다가 자기 고기 열 점 잃는다.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따름을 경계할 때 쓰는 표현이다.

독고리-낭[--꼬--] 𐄂 [식물] 찔레나무.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5월에 흰 꽃이 피
고, 10월께 열매가 빨갭게 익는다. 새순은 먹을 수 있으며, 열매는 약용으로 쓴다.

=뚱꼬리낭. 세베낭. 새비낭.

뚱꼬리-낭 ㉟ [식물] 짚레나무.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5월에 흰 꽃이 피고, 10월
께 열매가 빨갭게 익는다. 새순은 먹을 수 있으며, 열매는 약용으로 쓴다. =독고리
낭. 세베낭. 새비낭.

새베-낭 ㉟ [식물] 짚레나무.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5월에 흰 꽃이 피고, 10월
께 열매가 빨갭게 익는다. 새순은 먹을 수 있으며, 열매는 약용으로 쓴다. =독고리
낭. 뚱꼬리낭. 새비낭.

새비-낭 ㉟ [식물] 짚레나무.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5월에 흰 꽃이 피고, 10월
께 열매가 빨갭게 익는다. 새순은 먹을 수 있으며, 열매는 약용으로 쓴다. =독고리
낭. 뚱꼬리낭. 새베낭.

(4) 민요 제목, 굿 명칭, 본풀이 명칭 등 민속 관련 고유 어휘.

<예시>

그레그는-소리 ㉟ [민요] 예전에 민간에서 맷돌로 곡식을 갈 때 불렀던 전통적인 노
래. =그레놀레.

그레-놀레 ㉟ [민요] 예전에 민간에서 맷돌로 곡식을 갈 때 불렀던 전통적인 노래. =
그레그는소리.

좁수-굿[---굿] ㉟ [민요] 해상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잡녀들이 중심이
되어서 치르는 의례. 지역에 따라서 ‘좁네굿’이라고도 한다. ㉟ ‘좁수’는 ‘좁네’라고
도 하는데, ‘잡녀’ 또는 ‘해녀’에 대응하는 말이다. ‘좁수굿’은 지역에 따라서 치르는
날짜가 다르다. 대표적인 ‘좁수굿’의 하나는 음력 3월 8일 열리는 ‘김녕리 좁수굿’이
다. =좁네굿.

(5) 제주 사람들이 쓰거나 썼던 외래어 가운데 표제어로 올릴 만한 단어. 한자 어, 몽골어, 일본어 등 외래어.

<예시>

골총[古塚] ㉟ ①오래된 무덤. ②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치된 무덤. =골총.

골총[古塚] ㉟ ①오래된 무덤. ②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치된 무덤. =골총.

권당(眷黨) ㉟ 권당. 친척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권당.

권당[眷黨] ㉟ 권당. 친척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권당.

2) 단어가 아니더라도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것들은 수록한다.

(1) 접사(접두사, 접미사)

<예시>

돌- ㉠ ‘품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 {돌배.} (돌배.)/{돌우미.} (‘돌우미.’)

-군 ㉠ (상·중·하 등의 한자어 뒤에 붙어서) 특정 분야의 사람의 기량을 나타낼 때 쓰는 말. ㉡ 상군./중군./하군.

(2) 어미(선어말 어미,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 어미와의 결합형)

<예시>

-었- ㉠ -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끝남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 굶사 밥 {먹었수다.} (아까 밥 먹었습니다.)

-언 ㉠ -었어? -었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여’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종결 어미. ㉡ 잔칫집이 간 하영 {얻어먹언?} (잔칫집에 가서 많이 얻어먹었어?)

-았넌 ㉠ -았다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았다’의 변형 ‘-었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하다’, ‘말하다’, ‘근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 그 말은 누가 {글았넌} 하여라. (그 말은 내가 말했다고 하더라.)

-엇넌 ㉠ -었다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었다’의 변형 ‘-었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하다’, ‘말하다’, ‘근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 나가 이 떡 {먹엇넌} 곧지 맙서양. (내가 이 떡 먹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3) 단어보다 큰 단위는 부표제어로 수록한다.

- 관용어(구), 속담(금기어): 부표제어

<예시>

뭍 ㉠ [동뭍] 말. 말과의 포유류. 밭을 밟거나 사람의 이동 수단, 또는 짐을 운반할

때 등에 소용되는 동물이다.

말 죽은 밧디 들지 말라 𪛗 말 죽은 밧에 들어가지 마라. 헛길을 걸어 판전을 부리면 이득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1.2. 표기

1) 일반 원칙

(1) 표제어는 제주어로 하되 한글로만 적는다.

(2) 표제어와 예문 표기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른다.

(3) 표제어는 붙임표(-)를 사용해 표제어의 직접 구성 성분을 보여준다.

(붙임표는 단어 내부의 구조, 접사, 어미와 같은 비자립형식을 보여줄 때 사용함.)

<예시>

말-모레기 𪛗 벵어리.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말모로기. 말몰레기.

말-모로기 𪛗 벵어리.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말모레기. 말몰레기.

말-몰레기 𪛗 벵어리.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말모레기. 말모로기.

송충-이(松蟲-) 𪛗 [동물] 송충이. =소낭버렁이. 소낭베렁이. 솔충이. 송충버렁이.

왕- 𪛗 ‘큰’이라는 뜻을 더하는 말. 𪛗 {왕눈.}/{왕석.}/{왕재열.}

-군 𪛗 (상·중·하 등의 한자어 뒤에 붙어서) 특정 분야의 사람의 기량을 나타낼 때 쓰는 말. 𪛗 {상군.}/{중군.}/{하군.}

(4) 동음어는 구분 번호 01, 02, 03…를 덧붙인다.

<예시>

코01 𪛗 코[鼻]. ①사람 따위의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 냄새를 맡고 목 소리를 내는 데도 도움을 준다. 𪛗 죽은 애기 {코} 곱나.(죽은 아기 코 곱다.) ②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콧물. 𪛗 {코} 썰라.(콧물 닦아라.) ③버선이나 신 따위 앞쪽의 위로 내민 부분. 𪛗 {코} 터진 보선 신지 말라.(코 터진 버선 신지 마라.)

④ 공. 《석보상절, 1447, 13:38》. 룡. 《마경초집언해, 17세기, 상:102》

코02 ㉠ 코. ①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 ㉡그 사들 {코} 나간 거 아
 니가?(그 사들 코 나간 것 아니니?) ②웃고름이나 노끈 따위의 매듭이 풀리지 않도
 록 한 가닥을 고리처럼 맨 것. =코골레기. 코글레기. ③(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뜨개질할 때 눈마다 생겨나는 매듭을 세는 단위.

코03 ㉠ 올라미. ㉡우리 두릴 때 {코} 놓레 하영 뎡겿수다.(우리 어릴 때 올라미 놓
 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코거리.

질다01 ㉠ 길다. 머리카락이나 수염 따위가 자라다. ㉡머리 너미 {질언} 끊어사키
 여.(머리카락 너무 길어서 잘라야겠다.)

질다02 ㉠ 길다. ①잇달아 있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 ㉡그 스끼 너미 {질지}
 아녀냐?(그 새끼 너무 길지 않니?) ②소리, 한숨 따위가 오래 계속되다. ㉢어머닌
 무신 걱정이 신디사 한숨을 막 {질게} 쉽디다.(어머닌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 한숨
 을 아주 길게 쉬더군요.)

질다03 ㉠ 질다. 땅이 질척질척하다. ㉡눈 와나난 땅 {질언} 뎡기지 못허쿠다.(눈 왔
 던 땅이 질어서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5) 표제어의 글씨는 굵은 활자체를 사용함.

2) '붙임표(-)'

(1) 직접 구성 성분(IC) 분석의 결과는 붙임표(-)를 이용하여 표시한다.(2분지)

<예시>

말-모레기, ㄱ레ㄱ는-소리

(2) 구성 성분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단어이거나 접사일 경우 그 경계에 붙
 임표(-)를 넣는다. 다만, 조사 앞에는 붙임표를 넣지 않는다.

<예시>

질-구덕[-꾸-] ㉠ [[농업] 물건을 넣어서 등에 지고 나를 수 있게 대오리를 이용하여
 직사각형 모양으로 결은 그릇. ㉡옛날사 밧디 뎡길 때 {질구덕에} 밥 낡 정 뎡겨낯
 주게.(옛날이야 밧에 다닐 때 '질구덕'에 밥 넣어서 져서 다녔었지.) ㉢'질구덕'은
 예전에 물건을 운반할 때 여자들이 보통 등에 지고 다녔던 바구니다. 보통 밧에 다

닐 때 점심을 넣어서 지고 가거나 해녀들이 바다에 물질하러 다닐 때 ‘테왁’과 망사리 따위를 넣어서 지고 다닐 때도 썼다.

가 ㉠ 가. ①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 말을 주어가 되게 하는 조사. ㉡ {느가} 영희가?(네가 영희니?) ②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변하여 감을 나타내는 조사. ㉢ 송애기가 {췌가} 돼엇고나.(송아지가 소가 되었구나.) ③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다음에 오는 ‘아니다’와 호응하여 그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조사. ㉣ 자인 {아이가} 아니여.(재는 아이가 아니다.)

-가 ㉤ -니? 물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의문사가 없는 선택 의문문에서 사용된다. ㉥ 느가 {영희가?}(네가 영희니?)

(3) 현대어적 관점에서 형태소 경계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는 붙임표를 하지 않는다.

<예시>

수캐 ㉦ [동물] 수캐. 개의 수컷.

수토새기 ㉧ [동물] 수태지. 돼지의 수컷.

암코녕이 ㉨ [동물] 암고양이. 고양이의 암컷.

(4)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 단위가 아니라도 붙임표를 붙인다.

<예시>

밋-밋[민민] ㉩ 물건 따위를 잇달아 놓는 모양. ㉪ 감저 기갱이로 썰민 테역밭디 아정강 {밋밋} 넣어낫주게.(고구마 기계로 썰면 잔디밭에 가져가서 밋밋 넣었었지.)

오보룩-스보룩[---ㅈ---] ㉫ 기회를 자꾸 엿보는 모양.

(5) 한자어의 경우, 두 자로 된 것은 붙임표를 하지 않고, 구성 요소 중에서 표제어가 될 만한 것이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붙임표를 한다.

<예시>

권당[眷黨] ㉬ 권당. 친척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권당.

조문-하다(弔問---) ㉭ 조문하다. ㉮ {조문하레} 간 보난 아는 사름 하영 보입디다.(조문하러 간 보낸 아는 사람 하영 보입디다.)

문하러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 많이 보이더군요.) =고견하다. 고렴하다. 고애하다.

1.3. 배열

1) 일반 원칙

(1) 표제어는 한글맞춤법의 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에 따르되, [ㅇ], [으]는 모음 중 맨 뒤에 배열한다.

<예시>

말-모레기 𐄂 벙어리.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말모로기. 말몰레기.

말-모로기 𐄂 벙어리.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말모레기. 말몰레기.

말-몰레기 𐄂 벙어리.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말모레기. 말모로기.

송충-이(松蟲-) 𐄂 〔동물〕 송충이. =소낭버렁이. 소낭베렁이. 솔충이. 송충버렁이.

왕- 𐄂 ‘큰’이라는 뜻을 더하는 말. 𐄂 {왕눈.}/{왕석.}/{왕재열.}

(2) 주표제어 밑의 부표제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 관용구는 속담 위에 배열함.

<예시>

말 𐄂 〔동물〕 말. 말과의 포유류. 발을 밟거나 사람의 이동 수단, 또는 짐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동물이다.

말 죽은 밧디 들지 말라 𐄂 말 죽은 밧에 들어가지 마라. 헛길을 걸어 판전을 부리면 이득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2) 동음어

(1) 동음어는 표제어를 달리해서 번호를 01, 02, 03...으로 구분해 준다. 번호를 붙일 때 표제어의 ‘붙임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예시>

질다01 ㉠ 길다. ㉡ 머리 너무 {질었수다}.(머리카락 너무 길었습니다.)

질다02 ㉢ 길다. ①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 ②이어지는 시간상의 한 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 오래다. ③글이나 말 따위의 분량이 많다.

질다03 ㉣ 질다. ㉤ 눈 와나난 땅 {질엉} 텅기지 못허쿠다.(눈 왔던 땅 질어서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2) 동음어의 배열

- 어휘 형태는 문법 형태보다 먼저 배열한다.

<예시>

돌 ㉠ 돌[石].

돌- ㉡ 돌-. ‘품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돌베./ 돌우미.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순으로 배열한다.

(3) 품사 배열

① 어휘 형태

명사(자립 명사→의존 명사)→대명사(인칭 대명사→지시 대명사)→수사→ 동사(자동사→타동사→보조 동사)→형용사(본 형용사→보조 형용사)→관형사→부사→감탄사 순으로 배열한다.

② 단일어→복합어(합성어, 파생어) 순으로 배열한다.

③ 문법 형태

조사→어미(선어말 어미→종결 어미→연결 어미→전성 어미)→접사(접두사 →접미사)순으로 배열한다.

<예시>

가 ㉠ 가. ①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 말의 주어가 되게 하는 말. ㉡ {느가} 경준 이 아덜이구나!(네가 경준이 아들이구나!) ②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변하여 감을 나타내는 말. ¶ 송애기가 벌써 큰 {췌가} 됐어신께.(송아지가 벌써 큰 {소가} 되었네.)

-가 ㅁ -ㄴ가? -냐? ①체언에 붙어서, ‘하랴’ 할 자리에서 묻는 종결 어미. ¶ 저거 우리 {췌가?}(저거 우리 소냐?) ②‘아니다’ 어간에 붙어서, ‘하랴’ 할 자리에서 묻는 종결 어미. ¶ 저거 우리 몰 {아니가?}(저거 우리 말 아니냐?)

(4) 일반어는 전문어보다 먼저 배열한다. 전문어는 전문어 영역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2. 원어 정보

1) 한자어와 외래어는 가능한 한 그 원어(原語)를 밝혀 표기한다.

- (1) 한자어는 표제어 바로 뒤 () 속에 제시하고, 기타 외래어는 풀이 뒤에 제시한다. 변음 표제어의 경우, 표제어 바로 뒤 [] 속에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타 정보’에서 제시한다.
- (2) 한자어의 원어는 한자로, 일본어의 원어는 가나로, 기타 언어의 원어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 (3) 가능하면 한자와 영어는 국적을 표시하지 않고, 그 이외의 언어는 풀이 뒤에 원어명을 밝힌다.

〈예시〉

초-신(草-) ㉠ 【복식】 짚신. 짚이나 새 따위로 삼아 만든 신. ㉡ {초신}이라도 써시민 그걸 신영 어디라도 가주.(짚신이라도 있었으면 그것을 신어서 어디라도 갔지.) = 짝세기. 짝신. 짝세기. 짝신.

초-집(草-) ㉠ 【건축】 띠 따위로 지붕을 인 집.

공구리 ㉠ 【건축】 콘크리트,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따위를 적당히 섞고 물을 가하여 반죽한 것. ㉡ コンクリ. concrete.

2) 한자어에서 온 말은 표제어 바로 뒤 () 안에 원 한자를 밝혀 쓴다.

한자어 가운데 실제 음과 많이 달라진 변음어는 표제어 바로 뒤 [] 안에 원 한자를 밝혀 쓰고,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타 정보’에서 제시한다.

〈예시〉

골총[古塚] ㉠ ①고총. 오래된 무덤. ②오랫동안 돌보지 않거나 버려진 무덤. =골총.

골총[古塚] ㉠ ①고총. 오래된 무덤. ②오랫동안 돌보지 않거나 버려진 무덤. =골총.

벤-줄[瓶橋] ㉠ 【식물】 병굴. 제주에서 나는 굴의 한 가지. 굴 모양이 병(瓶)과 같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함. =벤줄. 병굴. 펥굴.

벤-줄[瓶橋] ㉠ 【식물】 병굴. 제주에서 나는 굴의 한 가지. 굴 모양이 병(瓶)과 같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함. =벤줄. 병굴. 펥굴.

병-굴[瓶橋] ㉠ 【식물】 병굴. 제주에서 나는 굴의 한 가지. 굴 모양이 병(瓶)과 같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함. =벤졸. 벤졸. 펑굴.

펑-굴[瓶橘] ㉟ [식물] 병굴. 제주에서 나는 굴의 한 가지. 굴 모양이 병(瓶)과 같이 생겼다는 데서 유래함. =벤졸. 벤졸. 병굴.

부주[扶助] ㉟ 부조. ①잔칫집이나 상가 등 남의 큰일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와줌. ②남을 거들어서 도와줌.

분시[分數] ㉟ 분수. ①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②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③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를 수 있는 한계.

사둔 ㉟ 사둔. ①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 또는 그 집안의 같은 항렬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대편을 이르는 말. ②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또는 혼인 관계로 일가가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 ㉟ sadun.

삼촌[三寸] ㉟ 삼촌. ①아버지 형제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②자기나 배우자의 부모와 항렬이 같은 친인척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③아버지나 어머니 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깝게 또는 다정다감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천리[遷移][철-] ㉟ 이장. 무덤을 옮김 또는 옮겨 씬.

추렴[出斂] ㉟ 추렴.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거나 거둬.

추렴-허다[出斂--] ㉟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거나 거두다.

호열재[虎列刺] ㉟ 호열자. [질병] 콜레라균에 의하여 일어나는 소화 계통의 전염병인 '콜레라'의 음역어 가운데 하나. 네덜란드어 또는 영어 cholera의 한자 차용 표기인 虎列刺(호열탈)을 '호열자'로 잘못 읽어서 전해진 말.

3) 한자어 이외에서 들어온 외래어 가운데, 어원은 분명하나, 원 발음에서 크게 바뀌거나, 원 발음이나 원 어형을 줄여서 쓰는 것, 다른 나라를 한 번 거쳐서 들어온 말 등은 원말 앞에 ㉟, ㉟ 등을 제시하여 나타낸다.

<예시>

가다마이 ㉟ [복식] 단추가 외줄인 양복의 윗도리. ㉟ かたまえ/片前. =마이.

납포등(一燈) ㉟ 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㉟ ランプ燈. lamp燈.

마이 ㉟ [복식] 단추가 외줄인 양복의 윗도리. ㉟ まえ/前. =가다마이.

미강 ㉟ [식물] 밀감. 운향과의 상록 활엽 관목. ㉟ みかん/蜜柑.

가빠 ㉟ 눈비 따위를 막기 위하여 덮는, 기름종이나 방수포나 천 따위로 만든 덮개.

① 일 カーパ. ② 포 capa.

4) 들어온 지 오래 되어서 순우리말과 같이 쓰이는 것도 가능하면 원어를 보인다.

- 현재 확인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자료에서 예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앞선 문헌의 표기를 밝힌다.

〈예시〉

가래-물 𑖇 【동물】 털빛이 온통 검은 말. ① 가라물. ② qara물.

멘들다 𑖇 ①목적하는 것을 이루다. ②없던 것을 새로 이루어 내다. ③말썽이나 일 따위를 일으키거나 꾸며 내다. ④ 밍들다. 《목우자수심결, 1467, 45》. =멧글다. 멧길다. 문들다. 몽글다.

멧글다 𑖇 ①목적하는 것을 이루다. ②없던 것을 새로 이루어 내다. ③말썽이나 일 따위를 일으키거나 꾸며 내다. ④ 밍글다. 《용비어천가, 1447, 40》. =멘들다. 멧길다. 문들다. 몽글다.

멧길다 𑖇 ①목적하는 것을 이루다. ②없던 것을 새로 이루어 내다. ③말썽이나 일 따위를 일으키거나 꾸며 내다. ④ 밍길다. 《용비어천가, 1447, 40》. =멘들다. 멧글다. 문들다. 몽글다.

문들다 𑖇 ①목적하는 것을 이루다. ②없던 것을 새로 이루어 내다. ③말썽이나 일 따위를 일으키거나 꾸며 내다. ④ 문들다. 《번역소학, 1518, 9:7》. =멘들다. 멧글다. 멧길다. 몽글다.

몽글다 𑖇 ①목적하는 것을 이루다. ②없던 것을 새로 이루어 내다. ③말썽이나 일 따위를 일으키거나 꾸며 내다. ④ 밍글다. 《용비어천가, 1447, 40》. =멘들다. 멧글다. 멧길다. 문들다.

붓 𑖇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페인트칠을 할 때 쓰는 도구의 하나. ① 분. ② 筆.

스시 𑖇 ①한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 ②한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③어떤 일에 들이는 시간적인 여유나 겨를. ④ 스시. 《용비어천가, 1447, 31》. =스이.

스이 𑖇 ①한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 ②한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③어떤 일에 들이는 시간적인 여유나 겨를. ④ 스이. 《속삼강행실도, 1514, 효:31》. =스시.

3. 발음 정보

3.1. 제시 범위

1) 발음 정보는 표제어의 발음이 표제어를 표기한 한글의 음가와 달라지는 경우 모두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서 특이하게 실현되는 발음은 부가정보에서 제시한다.

<예시>

조팍 [조팍] [음식] 조밥. 좁쌀로 만든 밥. ¶ {조팍도} 엇엉 못 먹주.(조팍도 없어서 못 먹지.)

콩-국[-국/-국] [음식] 콩국. 콩가루를 물에 개어 풀어놓고 배추나 무 등을 넣어 끓인 국. ¶ {콩국} 끓릴 땐 등사사 돼여.(콩국 끓일 땐 지켜서야 돼.) =콩국.

콩-국 [콩국] [음식] 콩국. 콩가루를 물에 개어 풀어놓고 배추나 무 등을 넣어 끓인 국. ¶ {콩국엔} 녹물이나 눅베나 놔사 맛싯주게.(콩국엔 나물이나 무나 놔야 맛있지.) =콩국.

3.2. 제시 방법

1) 발음 정보는 한글로 표시한다.

2) 발음을 표시하는 약물은 대괄호([])를 사용하고 두 개 이상의 발음이 있는 경우 빗금(/)을 써서 나타낸다.

3) 표제어와 발음이 같은 경우는 표시하지 않는다. 표제어 표기와 같은 발음이 나는 경우는 붙임표(-)로 나타낸다. 표기와 발음이 같더라도 특이한 경우는 발음을 제시할 수 있다.

<예시>

콩-각지[-찌/-각찌] [음식] 콩각지. 콩을 털어내고 남은 껍질. ¶ 콩 따려난 {콩각진} 쉼덜

이 켈 좋아하여.(콩 털어낸 콩깍진 소들이 켈 좋아해.) =콩각지. 콩고질. ㉠ 콩씩지.
 콩-고질[-고질/-꼬질] ㉡ 콩씩지. 콩을 털어내고 남은 껍질. ㉢ 낭밭디 걸름으로 {콩고
 질} 낄았수다.(나무밭에 거름으로 콩깍지 깔았습니다.) =콩각지.

3.3. 제시 내용

1) 표제어의 연음 현상에 따른 발음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법형태소(어미, 조사)와 결합하여 곡용이나 활용하는 경우 연음되더라도 발음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예시〉

셋-놈[센-] ㉡ 두 번째 아들. ㉢ 우리 {셋놈}이 지레가 흐쓸 크주게.(우리 두 번째 아
 들이 키가 조금 크지.) =셋소나이. 셋아들. 셋치.

셋-아들[세따-/센따-] ㉡ 두 번째 아들. ㉢ 올히 삼월에 우리 집이 {셋아들} 풀암수
 다.(올해 삼월에 우리 집의 두 번째 아들 결혼시킵니다.) =셋놈. 셋소나이. 셋치.

셋-치[세-/센-] ㉡ 두 번째 아들. ㉢ 난 니 성제에서 {셋치}마썸.(난 사 형제에서 두
 번째 아들이예요.) =셋놈. 셋소나이. 셋아들.

막아-지다 ㉡ 막히다. 길, 통로 따위가 통하지 못하게 되다. ‘막다’의 피동사. ㉢ 그디
 로 가민 질 {막아져실} 거라.(거기로 가면 길 막혔을 거야.)

2) 국어의 된소리,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발음 정보를 제시한다.

(1) 표준어의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현상과 환경이 일치하는 경우도 발음 정보를 제시한다.

(2) 동일한 단어가 특이하게 발음되는 경우는 변이 형태를 각각 표제어로 제시한다.

(3) ‘어간+어미’(예: 든대[-따])의 ‘된소리되기’ 현상도 발음 정보를 제시한다.

〈예시〉

밭-담[바땀/밭땀] ㉡ 밭담. 밭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밭 가장자리를 둘러쌓은 담.
 ㉢ {밭담을} 잘 다와사 쉼도 안 들곡 한다.(밭담을 잘 쌓아야 소도 안 들고 한다.)

웃-웃[우똥/웁똥] ㉡ 웃웃. ①맨 곁에 입는 웃. ②윗웃. ㉢ 날이 하영 추워져신디 {웃
 웃이라도} 걸청 가라.(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웃웃이라도 걸쳐서 가라.)

안-거리[-꺼-] ㄹ 안채. 한집 안에 안팎 두 채 이상의 집이 있을 때, 안에 있는 집채.
¶우린 {안거리} 살꼭 시어멍넌 밋거리 살꼭 해낫주께.(우리는 안채에 살고 시어머니넌 바깥채에 살고 했었지.) =안커리.

안커리 ㄹ 안채. 한집 안에 안팎 두 채 이상의 집이 있을 때, 안에 있는 집채. ¶올리 {안커리} 지붕 일어서 한다.(올해 안채 지붕 이어야 한다.) =안거리.

돋다[드따/-따] ㄹ <돋꼭, 돌으난, 돋당> 돋다. 달리다. ¶부지런히 {돋당} 보민 곳이 보일 거여.(부지런히 달리다 보면 끝이 보일 거야.)

3) 다른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은 그 정보를 제시한다.

<예시>

군-입[-닙] ㄹ 군입. ①무엇을 먹고 싶어 입을 다심. ¶아기 {군입} 다시는 거 보난 떡구정헌 생이여.(아기 군입 다시는 것을 보니 먹고 싶은 모양이야.) ②본식구 외에 덧붙어서 얻어먹는 객식구. ¶돈도 못 버스는 것이 {군입} 들앙 왔어라.(돈도 못 버는 것이 군입 데리고 왔더라.)

4)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발음 정보를 제시한다.

<예시>

몫이01[무지] ㄹ 맏이. 맨 먼저 낳은 아들이나 딸. ¶아멩헤도 {몫이가} 어멍 아방 생각을 더 허주기.(아무래도 맏이가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더 하지.)

몫이02[무지] ㄹ 터울. 한 어머니로부터 먼저 태어난 아이와 그다음에 태어난 아이와의 나이 차이. ¶난 성이영 시 술 {몫이우다.}(난 형이랑 세 살 터울입니다.)

5) 불규칙용언의 활용 양상에 대한 발음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예시>

곶대[구따/-따] ㄹ <곶꼭, 곶으난, 곶앙> 말하다. ¶{곶당} 보민 {곶아집니다.}(말하다 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6) 초분절음(소리의 길이, 강세, 억양 등)은 제시하지 않는다.

4. 품사 정보

1) 표제어의 형태 분석 정보를 2분지 방식으로 표제어에 직접 표시한다.

2) 단어는 현행 학교 문법에 따라 9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로 품사 표지를 각각 표시한다.

<예시>

개역 𐄂 [음식] 미숫가루. 찹쌀이나 멥쌀 또는 보리를 볶아서 가루로 만든 음식물.

¶ 여름엔 {개역만} 흔 게 엿주게.(여름에는 미숫가루만 한 게 없지.)/정지에 강 {개역} 멘글엿 오라게.(부엌에 가서 미숫가루 만들어서 와라.)

아모 ㄷ 아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나타내는 말. ¶ {아모나} 밧디 강 검 질메사주.(아무나 밧에 가서 김매야지.)/안직 {아모도} 안 왓수광?(아직 아무도 안 왔습니까?) 𐄂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 ¶ {아모} 일 엿어도 좋주게.(아무 일 없어도 좋지.) ㄷ 아모. =아무.

그디 [---/디] ㄷ 그곳. ¶ {그디에} 강 그 출 비엿 오라근엿 몰도 주곡 쉼도 주곡 경헨.(그곳에 가서 그 꼴 베어서 와서 말도 주고 소도 주고 그렇게 했어.)/그디 강 들 어보민 뉘주게.(거기 가서 물어보면 되지.) =거기.

하나 ㄴ 하나. 수효를 세는 맨 처음 수. ¶ 매해 쉼 {하나를} 질들엿주게.(매해 소 하나를 길들엿지.)/계난 일홀 사름 {하나가} 엿엿수광?(그러니까 일할 사람 하나가 없었습니까?)

발아-뎡기다 ㄷ 담장이나 나무 위 따위 밧붙이기 어려운 곳을 기어 다니거나 걸어 다니다. ¶ 경 {발아뎡기당} 낭 우의서 털어지켜.(그렇게 ‘발아뎡기당’ 나무 위에서 떨어지겠다.) =발아드니다.

마직-ㅎ다 ㄷ 알맞다. 적당하다. ¶ 밥 하엿 먹지 말앙 {마직ㅎ게} 먹으라.(밥 많이 먹지 말고 알맞게 먹어라.)/웃 마직ㅎ연 좋다.(웃이 알맞아서 좋다.)

하간(何間) ㄷ 여러 가지. 모든. ¶ 예전이 우린 군인들 잇인디 강 {하간} 장사도 허연

(예전에 우리는 군인들 있는데 가서 여러 장사도 했어.) =하근.

문딱 ㄹ 모두. ㄹ 꾀죽 잘 허영 먹젠 허민 꾀만 {문딱} 숲아사주게.(꾀죽 잘 해서 먹으려고 하면 꾀만 모두 숲아야지.) =멘딱. 모도. 모신탕이. 문짱02. 문. 문짱.

메-께 ㄹ 남이 하는 짓이나 말이 너무도 기가 막힐 적에 내는 소리. ㄹ {메께}, 경 허민 뵤크냐?(‘메께’, 그렇게 하면 되겠냐?)

더레 ㄹ 으로. 받침 있는 체언과 결합하여 행동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 ㄹ 밥 먹영 {뵤더레} 가릅주.(밥 먹고 뵤으로 가보쵸.)/그거 우에 앗앙 {집더레} 오당 저 오름 옆이서 탁 하게 뵤싸져 부난 나가 어디 돌에 탁 헿 허리 꺾어전.(그거 위에 앗아서 집으로 오다가 저 오름 옆에서 탁 하게 뵤집어져 버리니까 내가 어디 돌에 탁 해서 허리 꺾어졌어.)

보단 ㄹ 보단. ‘보다는’의 준말. 체언에 붙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데 쓰이는 격조사인 ‘보다’를 더 세게 나타내는 말. ㄹ 배질 혼 번 헤영 죽고 살고, 정승, {판서보단} 낮은 대울 받는덴 허니까, 내 이제는 혼 번 헤봐근에 죽어지건 말주.(배질 한 번 해서 죽고 살고, 정승, 판서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 이제는 한 번 해 봐서 죽으면 말지.)

(1) 의존명사(ㄹ)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사 표지를 한다.

<예시>

디 ㄹ 데.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ㄹ 느가 사는 {디} 강 집을 짓으라.(네가 사는 곳 가서 집을 지어라.)

처레 ㄹ 즐.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말. ㄹ 성이 경 흘 {처레} 누게가 알아 시크냐?(형이 그렇게 할 즐 누가 알았겠느냐?) =처리.

(2) 보조 동사 및 보조 형용사에 대해서는 뜻풀이에서 풀어써서 제시한다.

<예시>

불다 ㄹ 불다. 「자동사」(1)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 ㄹ 어치낙에도

부름 형영 {불었주}.(엿저녁에도 바람 많이 불었지.) 「타동사」(2) ①입을 오므리고
 날숨을 내어보내어, 입김을 내거나 바람을 일으키다. 『유리창에 강 입김 하영 {불
 라}.(유리창에 가서 입김 많이 불어라.) ②입술을 좁게 오므리고 그 사이로 숨을
 내쉬어 소리를 내다. 『쉐포름 {부는} 아시.(휘파람 부는 아우.) ③코로 날숨을 세
 게 내어보내다. 『쉐가 콧짐을 막 {불곡} 잇었주.(쇠가 콧짐을 막 불고 있었지.)
 ④관악기를 입에 대고 숨을 내쉬어 소리를 내다. 『느 피리 {불} 수 잇어?(너 피리
 불 수 잇어?) ⑤풀무, 풍구 따위로 바람을 일으키다. 『불미 {불영} 일 허였주.(풀
 무 불어서 일 했지.) (3) (-어)불다. 일부 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 구성으로 쓰는
 말.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그 행동이 이루어
 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
 음을 나타낼 때 쓴다. 『아시영 집이 강 {떡어 불라.}(아우와 집에 가서 떡어 버려
 라.)/이거 저레 {치와 불라.}(이거 저리로 치워 버려라.)

내다 ㉞ 「자동사」(1) ①곡식이나 음식물 따위를 팔려고 내놓다. 『장에 강 부루 {내었
 어}.(장에 가서 상추 내었어.) ②문서, 서류, 편지 따위를 제출하거나 보낸다. 『회
 사에 강 이거 {냈주}.(회사에 가서 이거 냈지.) (2) (-어) 내다. 앞말이 뜻하는 행
 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주로 그 행동이 힘든
 과정임을 보일 때 쓴다. 『가윈 아픈 걸 잘 {참아 낸다.}(그 아이는 아픈 걸 잘 참
 아 낸다.)

3) 어미(㉞)와 접사(㉞)는 준품사로 처리한다.

〈예시〉

-아시니 ㉞ -아 있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나 상태의 완료에 대하여 물음을 나타내는 말. 『어떠난 이거 원 생각 엇인 사름이
 {들어와시니?}(어째서 이거 원 생각 없는 사람이 들어왔느냐?) =-아시어.

-겠수다[-계쑤-/켄쑤-] ㉞ -겠습니다. ①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
 자의 의도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말. 『가서 노리 잡으민 전각 흥날 가정 {오겠수
 다.}(가서 노루를 잡으면 앞다리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②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말.

풀- ㉞ ㅍ-. ‘처음 나온’ 혹은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말. 『{풀늑물.}/(ㅍ나물.)

-바치 ㉮ -아치.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 ㉮ {동녕바치.}/{침바치.}

4) 관용구와 속담은 부표제어로 처리하고 별도의 표시를 한다(㉮, ㉮).

○ 미시구조에서의 부표제항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부표제어] [갈래 표시: ㉮, ㉮] [뜻풀이] 순으로 제시한다.

<예시>

바당 ㉮ 바다. 지구 위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찌꺼기 괴어 하나로 이어진 넓고 큰 부분. ㉮ 바당. ㉮ {바당에} 강 우피 봉가오라.(바다에 가서 우뚝가사리 주워와라.) =바다. 바르02.

바당이 개지름 피민 큰 날 우친다. ㉮ 바다에 ‘개기름’ 번지면 일기가 크게 악화된다. 바다의 상태를 보고 기상 상태를 예측했음을 비유해서 알려주는 말.

하간(何間) ㉮ 여러 가지. 모든. ㉮ 우리 마을인 {하간} 디 하영 뺑 갈 디가 해주게.(우리 마을에는 여러 곳 많이 봐서 갈 데가 많지.) =하근.

하간 것 ㉮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물건. =하근 것.

하간 디 ㉮ 여기저기. 여러 곳. =하근 디.

하간 일 ㉮ 여러 일. 여러 가지 일. 이 일 저 일. =하근 일.

5) 품사통용어는 하나의 표제어 내에 두 품사를 모두 제시하고, 표제어 내 의미 항목을 분할하여 뜻풀이를 한다.

<예시>

밤-낮[-난] ㉮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옛날 줌녀들은 {밤낮으로} 일 하영 헛 주.(옛날 해녀들은 밤낮으로 일 많이 했지.) ㉮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 ㉮ {밤낮} 검질메멍 힘들게 해도 먹고살기가 힘들었어.(밤낮 김매면서 힘들게 해도 먹고살기가 힘들었어.) =밤낮.

6) ‘합성어, 파생어’의 경우 미시구조 안의 변이형에는 붙임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시>

멜-국 ㉮ [음식] 나물과 멸치를 넣어 끓인 국. ㉮ {멜국} 하나로 밥 흰 사발을 먹을

수 있주. ('멜국' 하나로 밥 한 사발을 먹을 수 있지.) =멜국.

상-군(上軍) ㅉ [[어업] 작업하는 기량이 뛰어난 해녀. ¶ 우리 가시어멍이 {상군이엇 주.}(우리 장모가 '상군'이었지.) =상줍네. 상줍수. 왕줍네. 왕줍수. 큰줍네. 큰줍수.

7) 준말에는 별도의 품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예시>

가의 '그 아이'의 준말. ¶ {가의} 집에 잇이냐?(개 집에 있느냐?) =가이.

가이 '그 아이'의 준말. =가의.

5. 활용 정보

- 1) 용언의 활용 양상이 표준어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곡, -(으)난, -영’ 등과 같은 자음 어미, ‘으’계 어미, 모음 어미가 결합한 형태의 활용 정보를 제공한다.
- 3) 용언의 활용형은 화살괄호(〈 〉) 안에 제시하며, 그에 대한 발음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예시〉

긋다[그따/긋따] ㉸ 〈긋곡, 긋으난, 긋영〉 긋다. 금이나 줄을 그린다. ㉸ 작대기로 바닥에 금을 {긋으멍} 지나갔어.(작대기로 바닥에 금을 그으면서 지나갔어.)

젓다[저따/젓따] ㉸ 〈젓곡, 젓으난, 젓영〉 젓다. ①액체나 가루 따위가 고르게 섞이도록 손이나 기구 따위를 내용물에 넣고 이리저리 돌리다. ㉸ 커피는 물 하영 놓곡 {젓으멍} 멩글어사주게.(커피는 물 많이 넣고 저으면서 만들어야지.) ②배나 멩돌 따위를 움직이기 위하여 노나 손잡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다. ㉸ 그딤까지 배 {젓으멍} 가 봅주.(거기까지 배 저으면서 가 보지.) ③말 대신 손을 이리저리 돌려 어떤 뜻을 표하다. ㉸ 가의가 손을 {젓으멍} 부인헐어.(그 아이가 손을 저으면서 부인헐어.) ④팔이나 어깨 따위 신체의 일부를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 ㉸ 저딤 군인들이 팔을 {젓으멍} 걸영 갔주.(저기 군인들이 팔을 저으면서 걸어서 갔지.) ⑤짐승이 꼬리를 흔들다. ㉸ 쉼가 꼰렁이를 {젓으멍} 꼬리를 내쫓갔주.(쇠가 꼬리를 저으면서 파리를 내쫓았지.)

얼다02 ㉸ 〈얼곡, 어난, 얼영〉 춥다. 기온이 낮거나 기타의 이유로 몸에 느끼는 기운이 차다. ㉸ 아이고, {얼영} 죽어지켜게.(아이고, 추워서 죽겠네.) =춥다.

베리다 ㉸ 〈베리곡, 베리난, 베령〉 보다. ①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 길 걸을 땐 돌세기 차지 아녀게 잘 {베령} 덩기라.(길 걸을 때는 돌멩이 차지 않게 잘 보며 다녀라.) ②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 ㉸ 세경 {베리곡} 허당 보민 차 못 타쿠다.(‘세경 베리고’ 하다 보면 차 못 타겠습니다.)

묻다01[무따/묻따] ㉸ <묻꼭, 묻으난, 묻엉> 묻대[垢].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 느 옷에 흙 {묻으난} 조심행 일하라.(너 옷에 흙 묻으니까 조심해서 일해라.)

묻다02[무따/묻따] ㉸ <묻꼭, 묻으난, 묻엉> 묻대[埋]. 물건을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쌓아 덮다. ㉸ 우영팠디 {묻으난} 하영 싹이 자랏주.(텃밭에 묻으니까 많이 싹이 자랐지.)

묻다03[무따/묻따] ㉸ <묻꼭, 묻으난, 묻엉> 묻대[問].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 ㉸ 저 사람한테 {묻으난} 잘 모르켄 허여라.(저 사람한테 묻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6. 뜻풀이 정보

- 1) 표제어 뜻풀이는 제주어의 여러 용례에 나타나는 뜻을 중심으로 하여, 쉽고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가능한 한 표준어로 나타낸다.

<예시>

마썸 ㉠(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계’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조이면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 집이 {갓어마썸?}(집에 갔다고요?)/집이 {갓어마썸.}(집에 갔어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서) 청자에게 존대의 뜻과 함께 단정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조이면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 우리 {아방마썸?}(우리 아버지요?)/우리 {아방마썸.}(우리 아버지요.)/{더마썸?}(더요?)/{더마썸.}(더요.)

- 2) 뜻의 갈래가 여럿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디 뜻을 먼저 풀이한 다음, 바뀐 뜻, 파생된 뜻의 차례로 나타낸다.

<예시>

삼촌[三寸] ㉠ 삼촌. ①아버지 형제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②자거나 배우자의 부모와 항렬이 같은 친인척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③아버지나 어머니 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깝게 또는 다정다감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올레 ㉠ 오래. ①대문이 있어야 할 곳. 또는 그 가까운 곳의 바깥쪽과 안쪽 일대. ♣ 철수야, {올레예} 강 보라, 아방 왔인가.(철수야, 오래에 가서 봐라, 아버지가 오고 있는지.) ②대문이 있어야 할 곳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 일대. ♣ 아이들 어디서 놀았어냐? 가네, {올레에서} 놀았습디다.(아이들 어디서 놀고 있더냐? 개네, 오래에서 놀고 있습디다.) ㉡ 문오래. 《번역소학, 1518, 9:96》. 오래. 《천자문(광주천자문), 1575, 27》.

- 3) 뜻풀이는 대개 기본적인 뜻풀이로 한다. 뜻풀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할 때는 뜻풀이 앞에 ()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예시>

-바치 ㉠ -바치. -장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거나, 그것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거나, 그것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 ㉡ {동녕바치.}(거지.)/{갓바치.}(갓바치.)/{침바치.}(침쟁이.)

-쟁이 ㉠ -쟁이. -장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거나, 그것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거나, 그것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 ㉡ {노름쟁이.}(노름꾼.)/{돌쟁이.}(석수.)

(4) 뜻풀이는 전통적인 사전 뜻풀이의 일반적인 원칙인 유(類)와 종차(種差) 개념을 이용한다. 곧 단어는 먼저 그것이 속한 사물의 종류에 따라 정의하며, 다음에 그 종류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사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유-종차 개념의 뜻풀이는 상위어와 하위어의 구분이 명확한 단어에 적용한다.

<예시>

갯-담[개땀/괘땀] ㉠ [어업] ①바닷가나 낮은 바다에 돌로 둘러쌓은 담. ②돌밭. 바닷가나 낮은 바다에 돌로 둘러쌓은 어로 시설. =개. 원담.

바령-팻[—판] ㉠ [농업] 소나 말을 가두어 그 배설물로 땅을 걸게 하는 밭. =바랑밭. 바랑팻. 바령밭.

밭-담[바땀/밭땀] ㉠ [농업] 밭담. 밭의 가장자리에 밭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쌓은 담. 돌로 쌓기도 하고, 흙으로 쌓기도 한다.

원-담[—땀] ㉠ [어업] ①바닷가나 낮은 바다에 돌로 둘러쌓은 담. ②돌밭. 바닷가나 낮은 바다에 돌로 둘러쌓은 어로 시설. =개. 갯담.

(5) 제주어 표제어가 표준어의 뜻과 동일한 경우에는 대응 표준어를 제시하고 뜻풀이를 한다. 여러 갈래의 뜻이 있거나 축소된 뜻, 또는 확장된 뜻으로도 쓰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뜻풀이를 따로 한다.

<예시>

개01 ㉠ 개. ①바닷가에서 물으로 우묵하게 축 들어가서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②내의 하류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개02 ㉠ [어업] 돌밭. 바닷가나 낮은 바다에 돌로 둘러쌓은 담. =갯담. 원. 원담.

갯-담[개땀/괘땀] ㉠ [어업] 돌밭. 바닷가나 낮은 바다에 돌로 둘러쌓은 어로 시설. =개. 원. 원담.

원 罾 〔어업〕 돌발. ①바닷가나 낮은 바다에 돌로 둘러싸은 담. ②바닷가나 낮은 바다에 돌로 둘러싸은 어로 시설. =개. 갯담. 원담. 罾 밑물 때 들어왔던 바닷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잡기 위하여 만들었다.

원-담[-담] 罾 〔어업〕 돌발. ①바닷가나 낮은 바다에 돌로 둘러싸은 담. ②바닷가나 낮은 바다에 돌로 둘러싸은 어로 시설. =개. 갯담. 원.

불-턱 罾 〔어업〕 언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피워서 쪄 수 있게, 돌담으로 에워 쌓아 만든 것. =봉덕02. 罾 대개 제주도 바닷가, 특히 물질하는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는데, ‘즈네’들이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물질을 한 뒤에 불을 쪄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곳이다.

부섭 罾 ①불을 때기 위해 부엌의 땅바닥에 파서 만든 구덩이. ②크고 넓은 네모꼴로 돌을 만들어, 마루청이나 부엌 바닥에 설치하여 이용했던 화로의 하나. =돌화리 02. 봉덕01. 罾 지역에 따라 ‘부섭’을 설치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부엌에는 주로 모여 앉을 수 있는 중심부에 설치하고, 마루에는 대개 뒷문 가까이 설치했다. 겨울철에는 마루 천장에 철사로 무쇠 냄비를 매달고 물을 끓이기도 하고, ‘부섭’ 옆에서 자기도 하였다. 적을 굽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구울 때도 이용했다.

6) 품사별 뜻풀이의 경우, 가능한 한 명사는 명사구로, 부사는 부사구로, 동사는 동사구로, 형용사는 형용사구로 됨을 보여준다.

(1) 명사

〈예시〉

삼촌[三寸] 罾 ①아버지 형제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②자기나 배우자의 부모와 항렬이 같은 친인척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③아버지나 어머니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깝게 또는 다정다감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올레 罾 오래. ①대문이 있어야 할 곳. 또는 그 가까운 곳의 바깥쪽과 안쪽 일대. 罾 철수야, {올레에} 강 보라, 아방 앓인가.(철수야 올레에 가서 봐라, 아버지가 오고 있는 지.) ②대문이 있어야 할 곳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 일대. 罾 아이들 어디서 놀았어냐? 가네, {올레서} 놀았입디다.(아이들 어디서 놀고 있더냐? 개네, 오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③ 문오래. 《번역소학, 1518, 9:96》. 오래. 《천자문(광주천자문)(1575) 27》.

흐끔 ㉸ 조금. ①적은 정도나 분량. =흐끔. ②짧은 동안. =흐끔. ㉸ ①정도나 분량이 적게. =흐끔. ②시간적으로 짧게. =흐끔.

흐끔 ㉸ 조금. ①적은 정도나 분량. ㉸ 밥 다 먹어 부난 {흐끔베끼} 었다.(밥 다 먹어 버리니까 조금밖에 없다.) =흐끔. ②짧은 동안. ㉸ 시간이 {흐끔베끼} 었다게.(시간이 조금밖에 없다.) =흐끔. ㉸ ①정도나 분량이 적게. ㉸ 국이 짬작 허난 소곰 {흐끔만} 눅서.(국이 짬 듯하니 소곰 조금만 넣으세요.) =흐끔. ②시간적으로 짧게. ㉸ 지금 바빠 부난 {흐끔} 잇당 읍서.(지금 바빠서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 =흐끔.

(2) 부사

〈예시〉

흐썰 ㉸ 조금. ①적은 정도나 분량. =흐썰. ②짧은 동안. =흐썰. ㉸ ①정도나 분량이 적게. =흐썰. ②시간적으로 짧게. =흐썰.

흐썰 ㉸ 조금 ①적은 정도나 분량. ㉸ 보리썰 다 먹어 부난 {흐썰베끼} 었다.(보리썰 다 먹어 버리니까 조금밖에 없다.) ②짧은 동안. ㉸ 시간이 {흐썰베끼} 었다게.(시간이 조금밖에 없다.) ㉸ ①정도나 분량이 적게. ㉸ 장 비와시난 소곰 {흐썰만} 눅서.(간장을 부었으니 소곰 조금만 넣으세요.) ②시간적으로 짧게. ㉸ 버스 시간 다 뉘시난 {흐썰} 시민 올 겨우다.(버스 시간 다 뉘었으니 조금 있으면 올 것입니다.)

(3) 동사

〈예시〉

옹-허다 ㉸ ①움직이다. 앉거나 멈추어 있던 자세를 바꾸다. ㉸ 사람은 {옹허멍} 살아 아사 현다.(사람은 움직이면서 살아야 한다.) ② 일어서다. 앉았다가 서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나다. ㉸ 눅만 잇지 말앙 이제랑 {옹헝서.}(누워 있지만 말고 이제는 일어서십시오.) =옹허다.

옹-허다 ㉸ ①움직이다. 앉거나 멈추어 있던 자세를 바꾸다. ㉸ 이제랑 그만 쉬영 {옹헝게.}(이제는 그만 쉬고 움직이자.) ② 일어서다. 앉았다가 서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나다. ㉸ 아판 누어선게 이젠 {옹헝연} 뉘겡수과?(아파서 누웠던데 이제는 일어나서 다니고 있습니까?) =옹허다.

(4) 형용사

〈예시〉

메프다 ㉸ 원통한 일을 겪어서 마음이 매우 아프거나 슬프다. ㉸ 그 일만 생각하면 {메판} 참을 수가 없져.(그 일만 생각하면 ‘메판’ 참을 수가 없다.)

아깝다 ㉸ 아깝다 ①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 섭섭하거나 서운하다. ㉸ 목숨이 {아까우난} 어떻게 못했주게.(목숨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지.) ㉸ 그 사름을 놓치민 {아까울} 겁주.(그 사람을 놓치면 아까울 것이지요.) ②어떤 대상이 가치 있는 것이어서 버리거나 내놓기가 싫다. ③가치 있는 대상이 제대로 쓰이거나 다루어지지 못하여 안타깝다. ㉸ 섭지코진 나 혼자 보긴 {아까웁주.}(섭지코지는 나 혼자 보기는 아깝지요.) ④귀엽다. 예쁘고 곱거나 또는 애교가 있어서 사랑스럽다. ㉸ 자인 참 {아까운} 아이주.(재는 참 귀여운 아이지.)

(5) 조사

〈예시〉

가 ㉸ 가. ①(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인 대상, 또는 상태나 상황을 겪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문법적으로는 앞말이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임을 나타낸다. ㉸ 이거 {누게가} 헛이니?(이것 누가 했느냐?) ②(‘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문법적으로는 앞말이 보어임을 나타낸다.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는 대체로 조사 ‘로’로 바뀔 수 있다. ㉸ {고노리가} 올챙이가 뉘주게.(개구리알이 올챙이가 되지.)

이 ㉸ 이.①(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인 대상, 또는 상태나 상황을 겪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문법적으로는 앞말이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임을 나타낸다. ㉸ 그건 {아방이} 헛 거우다.(그것은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②(‘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문법적으로는 앞말이 보어임을 나타낸다. ㉸ 그 사름은 {사름이} 뉘어.(그 사람은 사람이 되었어.)

마시 ㉸ 요. ①(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게’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조이면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②(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서) 청자에게 존대의 뜻과 함께 단정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

조이면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마심. 마
썸. 마씨. 마썸.

마심 ㄱ 요. ①(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계’할 자리에 쓰이는 종
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조이면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②(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
미 따위의 뒤에 붙어서) 청자에게 존대의 뜻과 함께 단정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
조이면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마시. 마
썸. 마씨. 마썸.

마썸 ㄱ 요. ①(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계’할 자리에 쓰이는 종
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조이면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②(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
미 따위의 뒤에 붙어서) 청자에게 존대의 뜻과 함께 단정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
조이면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마시. 마
심. 마씨. 마썸.

마씨 ㄱ 요. ①(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계’할 자리에 쓰이는 종
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조이면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②(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
미 따위의 뒤에 붙어서) 청자에게 존대의 뜻과 함께 단정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
조이면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마시. 마
심. 마썸. 마썸.

마썸 ㄱ 요. ①(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계’할 자리에 쓰이는 종
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조이면 물음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 집이 {갓어마썸?}(집에 갔
다고요?)/집이 {갓어마썸.}(집에 갔어요.) ②(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
에 붙어서) 청자에게 존대의 뜻과 함께 단정을 나타내는 말. 억양이 상승조이면 물음
이나 의문을 나타내고, 억양이 하강조이면 단정을 나타낸다. ♣ 우리 {아방마썸?}(우
리 아버지요?)/우리 {아방마썸.}(우리 아버지예요.)/{더마썸?}(더요?)/{더마썸.}(더
요.) =마시. 마심. 마씨. 마썸.

(6) 관용구

<예시>

돌당 봐도 몰방이 ㄱ 돌다 보아도 연자방아. 빙글빙글 도는 연자방아는 아무리 돌아도
연자방아라는 뜻으로, 별다른 진보가 없이 같은 일만 되풀이함을 비유하는 말.

하간 디(何間-) ㉸ 여러 곳. 이곳저곳. 여기저기. ㉸ 경 {하간 디} 덩기명 소문 내지 말라.(그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문을 내지 말아라.)/요샌 {하간 디가} 아판 어디 덩기지도 못했어.(요새는 이곳저곳이 아파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있네.) =하근 디.

하근 디[何間-] ㉸ 여러 곳. 이곳저곳. 여기저기. ㉸ {하근 디가} 아프난 병원만 덩겼이네.(이곳저곳이 아프니까 병원만 다니고 있네.) =하간 디.

하간 일(何間-) ㉸ 여러 일. 여러 가지 일. 이 일 저 일. ㉸ {하간 일} 허단 보난 이젠 다 늙어 베신계.(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다 늙어 버렸네.) =하근 일.

하근 일[何間-] ㉸ 여러 일. 여러 가지 일. 이 일 저 일. ㉸ 그 사름은 {하근 일} 허여.(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해.) =하간 일.

(7) 접사

<예시>

가시- ㉸ 가시-. ‘아내의’라는 뜻을 더하는 말. ㉸ {가시아방이} 아판.(장인이 아파서.)/{가시어멍이} 바쁘주기.(장모가 바쁘지.)

민- ㉸ 민-. ‘꾸미거나 딸린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말. ㉸ 그 사름은 {민머리라.}(그 사람은 민머리야.)/저것이 민오름이주기.(저것이 ‘민오름’이지.)

원-(元-/原-) ㉸ 원-. ‘본래의’ 또는 ‘바탕이 되는’의 뜻을 더하는 말. ㉸ 지금 아방이 {원아방이주게.}(지금 아버지가 본디 아버지지.)/그 집이 {원어멍은} 친정이 가 비서.(그 집의 본디 어머니는 친정에 가 버렸어.)

<예시>

-바치 ㉸ -바치. -장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거나, 그것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거나, 그것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 ㉸ {동녕바치.}(거지.)/{갓바치.}(갓바치.)/{침바치.}(침의.) =와치.

-와치 ㉸ -바치. -장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거나, 그것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거나, 그것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 ㉸ {씨와치.}(‘씨와치’) =-바치.

-장이 ㉸ -바치. -장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거나, 그것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거나, 그것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 =-쟁이.

-챙이 ㉸ -장이. -쟁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거나, 그것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거나, 그것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 ㉸ {돌챙이.}(석수.)

7) 기본 뜻풀이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 표제어, 그리고 제주 문화와 관련된 것 등은 뜻풀이를 부가할 수 있다.

(1) 부가 뜻풀이는 가능하면 ‘-다’로 끝맺는다.

(2) 부가 뜻풀이에서 부득이하게 제주어를 쓰게 될 때는 제주어에 작은따옴표 (‘ ’)를 하여 나타낸다.

<예시>

돌-화리01 ㉠ 돌화로. 돌을 쪼개서 만든 화로.

돌-화리02 ㉠ 돌화로. ① 불을 때기 위해 부엌의 땅바닥에 파서 만든 구덩이. ② 크고 넓은 네모꼴의 돌을 이용하여 마루청이나 부엌 바닥에 설치하여 이용했던 화로의 하나. ‘돌화로’를 설치했던 지역도 있고, 설치하지 않았던 지역도 있었다. =봉덕01. 부섭.

봉덕01 ㉠ ① 불을 때기 위해 부엌의 땅바닥에 파서 만든 구덩이. ② 크고 넓은 네모꼴의 돌을 이용하여 마루청이나 부엌 바닥에 설치하여 이용했던 화로의 하나. ‘봉덕’을 설치했던 지역도 있고, 설치하지 않았던 지역도 있었다. =돌화리02. 부섭.

봉덕02 ㉠ 【어업】 언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피워서 쪼을 수 있게, 돌담으로 예워 쌓아 만든 것. 대개 제주도 바닷가, 특히 물질하는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는데, ‘좁네’들이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물질을 한 뒤에 불을 쪼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곳이다. =불턱.

불-턱 ㉠ 【어업】 언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피워서 쪼을 수 있게, 돌담으로 예워 쌓아 만든 것. 대개 제주도 바닷가, 특히 물질하는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는데, ‘좁네’들이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물질을 한 뒤에 불을 쪼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곳이다. =봉덕02.

8) 관용구나 속담의 경우, 해당 관용구나 속담에 대응하는 표준어 관용구나 속담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표준어 관용구나 속담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어 대역만 제시한다. 표준어 대응 예가 있을 때 표준어 대응 예를 제시하고, 그 뜻풀이는 ‘~비유하는 말, ~이르는 말, ~한다는 말’ 등과 같이 한다.

<예시>

각시가 아까우민 처가칩 주먹낭도 아까워한다 ㉠ 각시가 아까우면 처갓집 대문기둥도 아까워한다. 자기 색시와 관련된 것이면 다 좋게 보임을 비유하는 말.

기시린 도새기가 돌아맨 도새기 내무린다 𪛗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를 나무란다.

자기가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

가마귀 퐁 케우리듯 𪛗 까마귀 퐁 헤치듯. 일을 잘 못하는 모양을 비유하는 말.

돌당 봐도 물방이 𪛗 돌다 보아도 연자방아. 빙글빙글 도는 연자방아는 아무리 돌아도

연자방아라는 뜻으로, 별다른 진보가 없이 같은 일만 되풀이함을 비유하는 말.

7. 사용역 정보

사용 범위(전문 영역)와 사용 지역은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사용역은 뜻풀이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7.1. 사용 범위

1) 사용 범위는 일상어와 구분되는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말한다.

2) 전문 영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건축】, 【농업】, 【동물】, 【목축】, 【민속】, 【민요】, 【복식】, 【식물】, 【어업】, 【음식】, 【지명】, 【질병】

〈예시〉

몹주기01 ㉠ 【동물】 올챙이. ㉡ 두린 때 {몹주기} 잡으레 하영 뎡겨낫주.(어릴 때 올챙이 잡으러 많이 다녔었지.) =강베룩. 쟁베리.

봣뒤-창웃 ㉠ 【복식】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지은 베웃. =베창웃. 봣뎡웃. 봣뎡창웃. 봣뒤웃. 봣뒤적삼. 봣뎡웃. 봣뎡창웃.

봣블리는-놀래 ㉠ 【민요】 밭을 밟으면서 부르는 민요.

오돌또기 ㉠ 【민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창민요. ㉡ 예전에는 전국에 흩어졌던 민요였는데 오늘날에는 제주도에만 본래의 모습과 가깝게 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7.2. 사용 지역

1) 사용 지역은 가능한 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역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2) 사용 지역은 [세화], [조수]처럼 대괄호([])로 표시한다.

<예시>

문게[-/문게] ㉸ [동물] 문어. ㉸ 식게 때 {문게로} 적갈허는 것도 이제사 허는 거주, 옛날엔 그런 거 엇어났저.(제사 때 문어로 산적하는 것도 이제야 하는 거지, 옛날엔 그런 거 없었었어.)[조천 구좌] =무꾸력. 문어. 문에. 물꾸력.

물꾸력 ㉸ [동물] 문어. ㉸ 바당에 갓당 {물꾸력} 잡아지민 막 지꺼정 돌아오꼭 헤낫주.(바다에 갔다가 문어를 잡게되면 아주 기뻐서 달려오고 했었지.)[대정 안덕 한림] =무꾸력. 문게. 문어. 문에.

유름 ㉸ [식물] 으름. ㉸ 쪼글락헌 바나나 닳은 {유름} 맛을 잊어불 수가 엇주.(조그마한 바나나 같은 으름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조천 세화 표선] =유럼. 유으름. 존갱이. 즐갱이. 종갱이.

존갱이 ㉸ [식물] 으름. ㉸ 밧디 갓당 {존갱이라도} 하나 봉가지민 막 지꺼정.(밭에 갔다가 으름이라도 하나 줍게 되면 아주 기뻐서.)[대정 안덕 중문] =유럼. 유름. 유으름. 즐갱이. 종갱이.

7.3. 사용자 계층 및 집단

1) 언어 사용 계층은 일부 집단에서 사용하는 은어, 어린아이의 말, 노인들의 말, 부녀자들의 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계층 및 집단 정보는 뜻풀이 앞에서 소괄호(())를 사용하여 제공하거나 뜻풀이의 뒤쪽에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3) 표제어가 문법형태소의 경우는 뜻풀이에서 설명하고(①) 어휘인 경우는 소괄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②).

- 제공 형식: ①주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쓴다.

②(어린 아이의 말로), (사냥꾼들이)

<예시>

-**심** ㉸ 동사 어간에 붙어서 손아래 사람에게 친밀하게 권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쓴다. ㉸ 그만 놀앙 {일ㅎ심.}(그만 놀고 일하게.)

-**아시메** ㉸ -아 있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제삼자의 동작이 끝나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 쓴다. 『이제 강 보민 다 {가시메.}(이제 가 보면 다 가 있어.)

아이가이고 ㄱㅍ (어린 아이의 말로) 놀다가 한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큰일 났다고 하며 내는 소리. 『{아이가이고}, 어떡 할 거니?('아이가이고', 어떻게 할 거니?)

7.4. 발화 상황

1) '발화 상황'과 '발화자의 태도' 범주에 포괄되는 사용역 정보는 뜻풀이에서 밝힌다.

2) 비속어나 완곡어는 '~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을 낮추어 이르는 말', '~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시〉

데가리 ㄷㅊ 대가리.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어디 강 {데가리} 박양 와서니?(어디 가서 대가리 박아서 왔니?) =대망이. 더망세기. 더멍이. 데강이. 데구리. 데망세기. 데망이. 데멍이. 도가리. 득가리. 득멍이. ㉠ 더굴.

셋-거[세꺼/셴꺼] ㄷㅊ ①두 번째 아들이나 두 번째 딸을 낮추어 이르는 말. ②두 번째 아들이나 두 번째 딸을 낮추어 이르는 말. 『둘째는 사람도 아닌 셋이라, 셋놈, 셋년이엔도 안행 {셋거엔} 해낫수다.(둘째는 사람도 아닌 모양이야, '셋놈', '셋년'이라고도 않고 '셋거'라고 했었습니다.)

진-거 ㄷㅊ '뺨'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옛날은 질레서도 {진거} 하영 봐져낫져.(옛날은 길에서도 뺨 많이 볼 수 있었어.)

까불-이[-부리] ㄷㅊ 까부는 사람. 건방지고 주제넘은 짓을 하는 사람을 얹잡아서 일컫는 말. 『몰라신디 가의 잘도 {까불이라라}.(몰랐는데 개 정말 까불이더라.)

출람-생이 ㄷㅊ 출랑이. 출랑거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자의 무사정 {출람생이추룩} 출씩출씩험시니?(재 왜 저렇게 출랑이처럼 출씩출씩하고 있니?)

꾼 ㄷㅊ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이제 {꾼} 다 돼어신계.(이제 전문가 다 되었네.)

자뿌라-지다 ㄷㅊ '자빠지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질레 가당 {자뿌라정} 귀마리 고무 짚져.(길을 가다가 자빠져서 발목 삐었다.)

7.5. 발화자의 태도

- 1) 발화자의 태도에 따라 금기어, 친근한 말, 놀리는 말, 비꼬는 말 등이 있다.
- 2) 발화자의 태도는 소괄호(())를 사용하거나 뜻풀이의 뒤쪽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시>

매매빈쪽 ㉠ (다른 아이를 놀리는 어린아이 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다’를 나타내는 말.

7.6. 화자와 청자의 관계

- 1)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뜻풀이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 2) 높임말과 낮춤말 둘 다, 혹은 어느 하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 높임말에서는 ‘~의 높임말’이라는 뜻풀이로써 예사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낮춤말에서는 ‘~의 낮춤말’이라는 뜻풀이로써 예사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시>

오라버니 ㉠ 오라버니.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손위 남자형제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손위 남자 형제를 여동생이 이르거나 부르는 말. ㉡우리 {오라버니} 놀러 갈 때 들쭉 가꼭 해놔주.(우리 오라버니 놀러 갈 때 따라서 가고 했었지.) =오라바니.

오라버-님 ㉠ ‘오라버니’의 높임말. ㉡{오라바님이영} 손 꼭 심영 땡겨놔주게.(오라버니와 손 꼭 잡고 다녔었지.) =오라바님.

오라방 ㉠ 오라비. ①‘오라버니’의 낮춤말. ㉡흔 나 우이 {오라방이} 나보다 늦게 결혼했주.(한 살 위 오라비가 나보다 늦게 결혼했지.) ②여자가 남에게 자기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딸 성젠 엇곡 {오라방만} 둘 싣수다.(딸 형제는 없고 오라비

만 두 명 있습니다.) =오라비. 오레비.

가달-머리 𐄂 ‘다리’의 낮춤말. 𐄃 사름 위로 {가달머리} 녁기는 거 아니여.(사람 위로 다리 넘기는 거 아니다.)

다리01 𐄂 다리.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 𐄃 흐끔 하영 걸 으난 {다리} 아팡 죽어지키여.(조금 많이 걸으니 다리 아파서 죽겠다.) =가달.

8. 관련어 정보

8.1. 형태적 관련어

1) 본말-준말

- (1) 본말-준말의 관계는 뜻풀이 정보에서 제공한다.
- (2) 본말에서도 준말 정보를 주고 준말에서도 본말의 정보를 준다.
- (3) 준말이 표제어일 때 별도의 품사 표시를 하지 않고 뜻풀이는 ‘~의 준말’, ‘~의 본말’의 형태로 나타낸다.

<예시>

곱 ㉠ 감. ‘그음’의 준말. ①옷이나 이불 따위를 만드는 바탕이 되는 옷감. ㉡ 흥세함엔 딱 지성귀 멘들 {곱을} 놓주게.(혼서함에는 꼭 기저귀 만들 감을 놓지.) ②(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저 사람은 국회의원 {곱은} 아니라.(저 사람은 국회의원 감은 아니야.)

그음 ㉠ 감. ‘곱’의 본말. ①옷이나 이불 따위를 만드는 바탕이 되는 옷감. ㉡ 옷 멘들젠 허민 장에 강 {그음을} 상 와사주.(옷 만들려면 장에 가서 감을 사 와야지.) ③(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그 사람은 말도 잘 근곡 대통령 {그음이주}.(그 사람은 말도 잘하고 대통령 감이지.) ㉣ 곱. =곱심. 곱슴.

구들 ㉠ 구들. ①방. ㉡ 삼간집인 {구들} 두 개가 보통이주.(삼간집엔 방 두 개가 보통이지.) ③‘방구들’의 준말. ㉢ 이디서 구들 때는 건 굴묵이주게.(여기서 방구들 때는 건 ‘굴묵’이지.)

방-구들 (房--)[-꾸-]㉠ 화기(火氣)가 방 밑을 통과하여 방을 덥히는 장치. ‘구들’의 본말. ㉡ {방구들은} 때민 이딘 듯곡 저딘 써능허곡 훈엇이 경 덥질 안허여.(방구들은 때면 여긴 따뜻하고 저긴 차갑고 한없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

사다01 ㉠ 서다.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 ㉡ 오래 {상} 이서나난 다리가 버짱허다.(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뻗뻗하다.)

세우다 ㉠ ‘사다01’의 사동사. ㉡ 뻗 나민 작대기 {세왕} 풍체 영 들러사주.(뻗 나면 작대기 세워서 ‘풍체’ 이렇게 들어야지.)

셉다[ㄷ] ㉟ ‘세우다’의 준말. ㉠ 집 잘 짓젠 허민 지등을 잘 {셉는} 게 중요하다.(집 잘 지으려고 하면 기등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이 재, ‘저 아이’의 준말. ㉠ {자이} 보라, 아직도 잠시네.(재 봐라, 아직도 자고 있네.)

2) 큰말-작은말

(1) 큰말은 ‘~의 큰말’이라는 뜻풀이로 정보를 제공한다.

(2) 작은말은 ‘~의 작은말’이라는 뜻풀이로 정보를 제공한다.

<예시>

물랑-물랑 ㉠ 말랑말랑. ‘물렁물렁’의 작은말. ㉡ 이제사 곧 헌 떡이난 {물랑물랑} 맛 싣쿠다.(이제야 곧 한 떡이니까 말랑말랑 맛있겠습니다.)

3) 센말-거센말-여린말

(1) 센말은 ‘~의 센말’이라는 뜻풀이로 정보 제공한다.

(2) 거센말은 ‘~의 거센말’이라는 뜻풀이로 정보를 제공한다.

(3) 여린말은 ‘~의 여린말’이라는 뜻풀이로 정보를 제공한다.

<예시>

끔둥-이 ㉠ 끔둥이. ‘끔둥이’의 센말. ㉡ 꺼멍헌 강생이난 이름도 {끔둥이주게.}(꺼먼 강아지니까 이름도 끔둥이지.)

킴킴-ㅎ다 ㉠ 킴킴하다. ‘끔끔ㅎ다’의 거센말. ㉡ 불도 안 쌍 {킴킴헌} 디 앓아싣디 다.(불도 안 켜고 킴킴한 데 앓았더군요.)

8.2. 통사적 관련어

1) 통사적 관련어는 능동사-피동사, 주동사-사동사 등 파생 관계에 있거나, 연어 관계에 있는 표현들을 의미한다.

2) 통사적 관련어로 주동사-사동사, 능동사-피동사의 관계만을 제시한다.

3) 주동사-사동사

- (1) 주동은 주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동사의 성질이고, 사동은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을 말한다.
- (2) 표제어 간 ‘주동사-사동사’ 관계를 뜻풀이 뒤에서 ‘~의 사동사’로 표시한다.
- (3) 주동사에서는 대응 사동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시>

굽다[굽따] **㉠** 굽다. 끼니를 거르다. **¶** 계난 무사 경 {굽으멍} 돌아댕겼어.(그러니 왜 그렇게 굽으면서 돌아다녔어.)

굽-지다[굽-] **㉠** 굽기다. ‘굽다’의 사동사. **¶** 아의가 배탈 낭 혼 번 {굽졌저}.(아이가 배탈 나서 한 번 굽졌다.)

웃다[우따/운따] **㉠** 웃다. 기쁘거나 만족스럽거나 우스울 때 얼굴을 활짝 펴거나 소리를 내다. **¶** 우리 아시가 합격허난 아방이 꺄꺄 {웃엇어}.(우리 아우가 합격하니 아버지가 꺄꺄 웃엇어.)

웃-지다[우찌-/운찌-] **㉠** 웃기다. ‘웃다’의 사동사. **¶** 가의가 우리 어멍을 막 {웃졌주게}.(그 아이가 우리 어머니를 막 웃겼지.)

4) 능동사-피동사

- (1) 능동은 동작이나 작용이 주체의 자발적인 발동인 것을 말하며, 피동은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해 동작이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2) 표제어 간 ‘능동사-피동사’ 관계를 뜻풀이 뒤에서 ‘~의 피동사’로 표시한다.
- (3) 능동사에서는 대응 피동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시>

달다 **㉠** 달다.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 **¶** 돛베에 돛을 {달아야} 흐쵸 움직이주.(돛단배에 돛을 달아야 조금 움직이지.)

달-리다 **㉠** 달리다. 물건이 일정한 곳에 걸리거나 매어 있게 되다. ‘달다’의 피동사.

¶ 잠대에 {들린} 게 뱃이영 보섭이주게.(쟁기에 달린 게 뱃과 보습이지.)

막다[**-따**] ㉸ 막다. 길, 통로 따위가 통하지 못하게 하다. ¶ 쪼이 잇이난 구녕을 {막 아사주}.(쪼가 있으니까 구멍을 막아야지.)

막아-지다 ㉸ 막히다. 어려운 대목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다. ‘막다’의 피동사. ¶ 그 디로 가민 질 {막아져실} 거라.(거기로 가면 길 막혔을 거야.)

8.3. 의미적 관련어

1) 의미적 관련어의 경우 유의 관계만을 제시한다.

2) 의미적 관련어 중 ‘유의 관계’ 정보는 약물 ‘=’를 사용하여 상호 표시 방식으로 제공한다.

○ 유의어의 제시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예시>

골각지[**-찌**] ㉸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날끝은 약간 넓적한 삼각형 모양이고 끝은 뾰족하고 목을 휘어 구부리고 슝베를 둥근 나무 자루에 박는다. ¶ 검질메당 모다들영 {골각지로} 막 쫓아 가는 거라.(김매다가 모여들어서 호미로 막 쫓아 가는 것이라.) =골강쇄. 골계. 골계기. 골쟁. 골쟁이. 호맹이.

골강-쇄 ㉸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날끝은 약간 넓적한 삼각형 모양이고 끝은 뾰족하고 목을 휘어 구부리고 슝베를 둥근 나무 자루에 박는다. ¶ 검질메당 모다들영 {골강쇄로} 막 쫓아 가는 거라.(김매다가 모여들어서 호미로 막 쫓아 가는 거야.) =골각지. 골계. 골계기. 골쟁. 골쟁이. 호맹이.

골계 ㉸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날끝은 약간 넓적한 삼각형 모양이고 끝은 뾰족하고 목을 휘어 구부리고 슝베를 둥근 나무 자루에 박는다. ¶ 검질메당 모다들영 {골계로} 막 쫓아 가는 거라.(김매다가 모여들어서 호미로 막 쫓아 가는 것이라.) =골각지. 골강쇄. 골계기. 골쟁. 골쟁이. 호맹이.

골계기 𠄎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날끝은 약간 넓적한 삼각형 모양이고 끝은 뾰족하고 목을 휘어 구부리고 슝베를 둥근 나무 자루에 박는다. ㉠ 검질메당 모다들엉 {골계기로} 막 쫓아 가는 거라.(김매다가 모여들어서 호미로 막 쫓아 가는 것이라.) =골각지. 골강쇄. 골계. 골쟁. 골쟁이. 호명이.

골쟁 𠄎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날끝은 약간 넓적한 삼각형 모양이고 끝은 뾰족하고 목을 휘어 구부리고 슝베를 둥근 나무 자루에 박는다. ㉠ 검질메당 모다들엉 {골쟁으로} 막 쫓아 가는 거라.(김매다가 모여들어서 호미로 막 쫓아 가는 것이라.) =골각지. 골강쇄. 골계. 골계기. 골쟁이. 호명이.

골쟁-이 𠄎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날끝은 약간 넓적한 삼각형 모양이고 끝은 뾰족하고 목을 휘어 구부리고 슝베를 둥근 나무 자루에 박는다. ㉠ 검질메당 모다들엉 {골쟁이로} 막 쫓아 가는 거라.(김매다가 모여들어서 호미로 막 쫓아 가는 것이라.) =골각지. 골강쇄. 골계. 골계기. 골쟁. 호명이.

호명이 𠄎 호미.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날끝은 약간 넓적한 삼각형 모양이고 끝은 뾰족하고 목을 휘어 구부리고 슝베를 둥근 나무 자루에 박는다. ㉠ 검질메당 모다들엉 {호명이로} 막 쫓아 가는 거라.(김매다가 모여들어서 호미로 막 쫓아 가는 것이라.) =골각지. 골강쇄. 골계. 골계기. 골쟁. 골쟁이.

9. 용례 관련 정보

- 1) 모든 주표제어에 대한 용례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명이나 고유 명사 등은 예외로 한다.

<예시>

사-다리 ㉮ 사다리.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

㉮ 사다리. =사드레. 사드리.

사-드레 ㉮ 사다리.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

㉮ 그 {사드레} 낱 출늘 우이 올랑 감도 타곡 헛주.(그 사다리 놓고 꼴가리 위에 올라서 감도 따고 헛지.)/{사드레} 낱 올라사민 심어지쿠다.(사다리 놓고 올라서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 사드리. =사다리. 사드리.

사-드리 ㉮ 사다리.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

㉮ 사드리. =사다리. 사드레.

사라-오름 ㉮ [지명] ①제주시 건입동 동쪽 바닷가에 있는 오름. ②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경계에 걸쳐진,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오름.

- 2) 부표제어 중 속담은 용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속담은 표제어의 용례로 쓰지 않는다.

<예시>

바령-팻 ㉮ [농업] 소나 말을 가두어 먹이면서 그 배설물로 걸게 하는 밭. ㉮ 췌 그 {바령팻디} 가두왕 똥도 싸곡 오즙도 싸게시리 헛주.(소를 그 ‘바령팻’에 가두어서 똥도 싸고 오즙도 싸게끔 헛지.)/㉮술에 {바령팻} 허영 보리 갈민 보리가 잘뉘주게.(가을에 ‘바령팻’ 해서 보리 갈면 보리가 잘되지.) =바랑밭. 바랑팻. 바령밭.

바령팻디 곡식 좋나 ㉮ ‘바령팻’의 곡식 좋다. 소나 말을 가두어 먹이면서 그 배설물로 땅을 걸게 한 밭은 곡식이 좋다는 뜻이다.

- 3) 용례는 제시된 자료집의 문장을 활용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인용한 경우는 《저자, 저서명, 연도》의 형식으로 출전을 밝힌다.

<예시>

줄01 ㉮ 줄. ①노, 새끼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 이거 털어지지 안허게 {줄로}

무꺼사.(이거 떨어지지 않게 줄로 묶어야.)/산디찍으로 줄 멘들양도 췌주.(밭벗짚으로 줄 만들어서도 췌지.) ②초가지붕을 인 띠를 바둑판 모양으로 얹어매는 물건. ¶ 지붕 일 {줄은} 다 비영 놔뵈수과?(지붕 일 줄은 다 꼬아 뵈습니까?)/{줄은} 췌른 {줄도} 싣고 진 {줄도} 셔.(줄은 짧은 줄도 있고 긴 줄도 있어.)/{줄} 어울이젠 허쁜 네 사름은 셔사주.(줄 엮으려고 하면 네 사름은 있어야지.)《○○○, 제주어구술자료집 6, 2017》=집줄.

4) 용례는 가급적 표제어의 의미와 문법적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1) 명사 표제어라면 함께 쓰이는 서술어의 대표 예가, 동사 표제어라면 함께 쓰이는 명사의 대표 예가 용례를 통하여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 (2) 명사 표제어에서는 곡용의 양상이, 동사 표제어에서는 활용의 양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 (3) 감탄사와 같은 독립어는 담화 단위의 용례가 필요하다.
- (4) 접사 등은 단어나 구 형태로 용례를 제시할 수 있다.

〈예시〉

줄01 ㉠ 줄. ①노, 새끼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 이거 털어지지 안허게 {줄로} 무꺼사.(이거 떨어지지 않게 줄로 묶어야.)/산디찍으로 줄 멘들양도 췌주.(밭벗짚으로 줄 만들어서도 췌지.) ②초가지붕을 인 띠를 바둑판 모양으로 얹어매는 물건. ¶ 지붕 일 {줄은} 다 비영 놔뵈수과?(지붕 일 줄은 다 꼬아 뵈습니까?)/{줄은} 췌른 {줄도} 싣고 진 {줄도} 셔.(줄은 짧은 줄도 있고 긴 줄도 있어.)/{줄} 어울이젠 허쁜 네 사름은 셔사주.(줄 엮으려고 하면 네 사름은 있어야지.)《제주어구술자료집 6, 2017》=집줄.

불다 ㉡ 〈불곡, 비난, 불양〉 ①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잔잔하다. ¶ 오늘 날 잘도 {불다이}.(오늘 날씨가 아주 ‘불다이’.) ②물결이 잔잔하다. ¶ 구월 초조곰 {불민} 벵제기 각시 남죽 들렁 춤춘덴 험다.(구월 초조곰 ‘불민’ 어부 각시 죽젓개 들고 춤춘다고 한다.)

심다02 ㉢ 〈심곡, 심으난, 심영〉 ①잡다. ¶ 이 줄 벵끈 {심영} 이시라.(이 줄 짝 잡고 있어라.) ②붙잡다. ¶ 아이고, 자이 또 어디 들암시니? 자이 {심으라}.(아이고, 재 또 어디 닫고 있니? 재 붙잡아라.)

심은 꿩 나뉘는 꿩 심젠 한다. ㉮ 잡은 꿩 놔두고 나는 꿩 잡으려고 한다. 욕심을 부리다가 손에 잡았던 것마저 놓쳐 버린다는 의미다.

싱그다01 ㉮ <싱그곡, 싱그난, 싱경> 심다.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 속에 묻다.

¶ 꿩마농은 다 우영팍디 {싱것단} 먹주게.(파는 다 터알에 심었다가 먹지.) =심다01.

싱그다02 ㉮ <싱그곡, 싱그난, 싱경> 제사상 따위를 차리다. ¶ 제사상은 아방이 {싱그는} 거라.(제사상은 아버지가 차리는 거야.)/입관허민 상 {싱경} 이제 성복제 허는 거주.(입관하면 상 차려서 이제 성복제 하는 거지.)

메께라 ㉮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거나 당할 때 탄식조로 내는 소리. 주로 여성이 사용한다. ¶ {메께라}, 경 한 걸 다 먹어 붙언다?(‘메께라’, 그렇게 많은 걸 다 먹어 버렸니?)/{메께라}, 이거 무신 일이고게?(‘메께라’, 이거 무슨 일인가?)

계난 ㉮ 그러니까. ¶ 그뻬 돈이 엇언 살기 심들어났주. {계난} 군대 가 분 거라.(그뻬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들었었지. 그러니까 군대에 가 버린 거야.)

말젯- ㉮ 셋째의 뜻으로 쓰이는 말. 보통 형제자매가 넷 이상일 때 세 번째 앞에 붙는다. ¶ {말젯아덜.}(셋째 아들.)/{말젯년.}(셋째 딸.) =말젯-.

광 ㉮ 과. ¶ {독광} 주녕이.(닭과 지네.)/느네 {아방광} 어멍은 안적 안 와시냐?(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안 왔니?)

양01 ㉮ ①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 ¶ {양}, 이디 모즈 털어젯수다.(예, 여기 모자 떨어졌습니다.) ②윗사람의 말을 되풀이할 때 쓰는 말. ¶ {양?} 그거 무신 말이우과?(예? 그거 무슨 말입니까?) ③윗사람에게 사정하거나 당부를 할 때 쓰는 말. ¶ 잇어불지 말앙 약 꼭 먹읍서, {양.}(잇어버리지 말고 약 꼭 드세요, 예.)

양02 ㉮ ①(종결 어미 뒤에 붙어) 동의, 재촉, 사정의 뜻을 더하는 말. ¶ 삼촌도 {읍서양.}(삼촌도 오세요, 네.) ②(체언이나 부사어, 연결어미 따위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넬양}, 난 집이 엇일 거주다.(넬요, 전 집에 없으거예요.)/{게메양?}(글쎄요?)/물에 들영 메역도 {즈물곡양,} 구쟁기도 즈물곡 협주.(물에 들어서 미역도 캐고요, 소라도 잡고 하지요.)

5) 용례의 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6) 용례의 구분은 ‘㉠’ 표시를 사용하고, 두 개 이상의 경우 빗금(/) 표시를 하여 연이어 표기한다.

〈예시〉

줄01 ㉠ 줄. ①노, 새끼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이거 떨어지지 안허게 {줄로} 무꺼사.(이거 떨어지지 않게 줄로 묶어야.)/산디쪽으로 줄 멘들앙도 췌주.(밭벧짚으로 줄 만들어서도 췌지.) ②초가지붕을 인 띠를 바둑판 모양으로 엮어매는 물건. ㉠지붕 일 {줄은} 다 비영 놔뵈수과?(지붕 일 줄은 다 꼬아 뵈릅니까?){줄은} 췌른 {줄도} 싣고 진 {줄도} 셔.(줄은 짧은 줄도 있고 긴 줄도 있어.){줄} 어울이젠 허른 네 사름은 셔사주.(줄 엮으려고 하면 네 사름은 있어야지.)《○○○, 제주어구술자료집 6, 2017》=집줄.

7) 용례에서 해당 표제어는 어절 단위로 ‘{ }’ 표시를 하여 나타낸다.

〈예시〉

천리[遷移][철-] ㉠ 이장. 무덤을 옮김 또는 옮겨 씬. ㉠상봉이네 하르방 산 {천리험젠} 헤라.(상봉이네 할아버지 묘 이장한다고 하더라.)/하르방 산, 그디 질 뻘덴 험 {천리혜살} 거라.(할아버지 산소, 거기 길 뻘다고 하니 이장해야 할 거야.)
가빠 ㉠ 눈비 따위를 막기 위하여 방수포나 천 따위로 만든 덮개. ㉠콩 꺼췌 모도민 {가빠} 더췌 놔뵈당 테작험 거주게.(콩 꺾어서 모으면 ‘가빠’ 덮어서 두었다가 타작할 거지.)/멍석 폐왕 날레 널당 {가빠} 나난 거 낄앙도 막 널어났주.(멍석 퍼서 ‘날레’ 널다가 ‘가빠’ 나오니까 거 깔아서도 막 널었었지.) ㉠ カーパ. ㉡ capa.

8) 모든 용례는 표준어 대역을 제시한다. 표준어로 대역할 경우 대응 표준어가 없을 때는 작은따옴표(‘ ’) 표시를 하고 표제어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예시〉

바령-팻 ㉠ [농업] 소나 말을 가두어 그 배설물로 땅을 걸게 하는 밭. ㉠췌 그 {바령팻디} 가두왕 똥도 싸곡 오췌도 싸게시리 험주.(소를 그 ‘바령팻’에 가두어서 똥도 싸고 오췌도 싸게끔 험지.)/7슬에 바령팻 허영 보리 갈민 보리가 잘뵈주게.(가을에 ‘바령팻’ 해서 보리 갈면 보리가 잘뵈지.) =바랑밭. 바랑팻. 바령밭.

10. 기타

1) 필요한 경우 사진과 그림을 제시하여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예시>

돌뱅이-뿔 ㉠ 【농업】 물추리막대. 붓줄을 매기 위하여 성에 끝에 박은 비녀 모양의 나무. ㉡ 밭 갈젠 허민 쉼에 맨 줄을 {돌뱅이뿔에} 무꿍 잠대 메우는 거주.(밭 갈려고 하면 소에 맨 줄을 물추리막대에 묶어서 쟁기 메우는 거지.)/잠대에 {돌뱅이뿔이} 영 나와사 이디 줄을 무끄지.(쟁기에 물추리막대가 이렇게 나와야 여기 줄을 묶지.)



2) 표제어와 관련한 제주 문화 등의 설명은 ‘참고’ 내용을 표시한 다음 기술한다.



<예시>

동고량 ㉠ 【농업】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어 만든 도시락. ㉡ 쉼 보러 갈 땐 {동고량에} 징심 싸 아정 갖추.(소 보러 갈 땐 ‘동고량’에 점심 싸 가지고 갔지.)/{동고량에} 밥 싸사 여름에도 밥이 쉬지 안허여.(‘동고량’에 밥 싸야 여름에도 밥이 쉬지 않아.) = 동고령. 밥당석. 밥장석. 밥차반지. ㉢ ‘동고량’은 뚜껑이 있는 채롱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마소를 돌보거나 일을 하러 들에 나갈 때 밥을 싸고 다니는 그릇이다.

〈참고 자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Ⅰ·Ⅱ.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10), 《국립국어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중장기 사업 계획서》.
- 도원영·박주원(201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 교양.
- 두산동아(2008), 《두산 새국어사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 오창명·오승훈(2015), 《사용자 중심의 제주말사전 발간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우창현(2008), 〈방언 문법 형태 연구 방법: 제주방언 선어말어미 ‘-크-’를 중심으로〉, 《방언학》 7, 한국방언학회, 57-96쪽.
- 우창현(2012), 〈결혼여성이민자 대상 불규칙 활용 교육 방법: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56, 한국문학언어학회, 95-113쪽.
- 유현경·남길임(2009),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역락.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구축 최종보고서》.
- 정승철(2000), 〈제주방언의 음운론〉, 《탐라문화》 2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79-189쪽.
-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 조남신(2015), 《사전학》, 한국문화사.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1-4), 어문각.
- 한글학회(1941-1957), 《큰사전》(1-6), 을유문화사.
- 현평호·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어미사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 총서 1,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홍종선 외(2009), 《국어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연구 수행

◎ 수행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 연구진

- 연구 책임
김순자(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공동 연구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신우봉(제주대학교 교수)
김보향(제주대학교 강사)
김미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연구 보조
현혜림(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 자문위원

-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강정희(한남대학교 명예교수)
- 고동호(전북대학교 교수)
- 문덕찬(제주어 보전 및 육성위원회 위원)
- 문숙영(서울대학교 교수)
- 정승철(서울대학교 교수)

◎ 행정 협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 61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531-01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획과 집필 지침

발행일 2019년 9월 30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편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726-9154

제작 한그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1길 21

전화 064-723-758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